제2편 근대교육의 개척

(1906~1931, 의명학교 시대)

제1장 근대교육의 태동

우리나라에서 근대교육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원산학사(元山學舍)가 설립된 1883년을 그 시점으로 보고 있다.1 원산학사는 외국세력의 접촉이 활발했던 개항지인 원산에 살고 있던 지역민들이 외국의 도전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젊은 신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 자발적인 기금모금을 통해 설립한 학교였다. 이들은 새로운 세대에게 신지식을 교육하기위하여 서당을 개량한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외국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통(수학,물리,농업 등) 및 특수과목들(경의,병서,외국어,법률,지리 등)을 문예반과 무예반으로 나누어서 가르쳤다. 학사규정 및 교칙도 마련하는 등 근대학교로서의 교육시스템을 갖춘 원산학사는 갑오개혁 이후 소학교 체제로 유지되어 1945년에 이르기까지 원산지역의 근대교육기관의 역할을 다하였다. 원산학사가 설립된 직후 다양한 목적을 가진 교육기관들이 만들어져 한국 근대교육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된다.

1. 근대교육의 특징

이 시기, 즉 개화기에 세워진 근대교육 및 교육기관들의 특징들은 다음의 몇 가지 로 살펴볼 수 있다.²

첫째, 이 시기의 근대적 교육기관들은 매우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특별히 최초의 관립학교로 세워진 동문학(同文學)과 그 이후 보다 체계적인 관립학교로 등장한 육영공원(育英公院) 등은 개화기에 서구문화의 급속한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관료 양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교육기관들이었다. 동문학은 원산학사가설립되던 해인 1883년에 김윤식이 통리기무아문의 부속기관으로 통역관 양성을 위해세운 어학교육기관이었다. 형식상 종전의 역관양성기관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일본 어와 중국어는 물론이고 최초로 영어를 가르친 전문어학교육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3년 후인 1886년에 동문학은 문을 닫고 대신에 육영공원이 설립되었는데, 여기서는 양반가 자제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 어학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1894년에 재정적인 문제로 문을 닫을 때까지 특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이 당시의 관

¹정순우는 18세기 후반에 개혁된 서당교육을 근대교육의 시점으로 주장하며, 오천석은 교육사상 사와 교육운영 방침 상 아펜젤러에 의해서 세워진 배재학당을 최초의 근대교육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신용하는 서구의 신지식을 교육내용으로 채택해 세워진 원산학사가 최초의 근대교육기관이라고 강조한다. 정재걸, "한국 근대교육의 기점에 관한 연구," 교육사학 연구 2·3 (1990): 103.

²한국교육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교육100년사(서울: 교육신문사, 1999), 130, 131.

립학교들은 어학 등 개화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민족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교육을 개척한 관립학교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근대교육의 실질적인 개척은 원산학사와 같은 사립학교들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육영공원이 설립되기 전후에 근대적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들이 세워졌다. 대표적인 교육기관들로는 1885년에 아펜젤러(H. G. Appenzeller)에 의해 세워진 배재학당과 1886년에 스크랜튼(M. F. Scranton)에 의해 세워진 이화학당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미국 북감리선교회의 선교사들로서 기독교사상에 입각한 인재 양성을 기치로 이 땅에 교육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대표적인 사립 종교학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1885년에 앨런(H. N. Allen)에 의해 설립된 근대 의료기관인 제중원(초기엔 광혜원으로 명명됨) 내에서 의료교육이 실시됨으로써 세브란스 의과대학(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의 효시가 된 것도 사립 종교교육의 한 역사가 되었다. 이들 사립종교학교들은 기독교정신과 개화사상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의 근대교육을실질적으로 이끌었다. 여기에는 문명선교라는 하나의 종교적 목적이 작용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근대화라는 절실한 과제에 부응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도 있었다.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은 1902년에 초등학교만을 통계로 해도 이미 100개에 육박하고 있을 만큼 발전하였다.1

셋째,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갑오개혁(1894)은 근대교육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홍집, 유길준, 박영효 등 갑오개혁의 주역들은 교육개혁을 국가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갑오교육개혁은 기본적으로 신분계급의 타파를 위한 과거제도 폐지와 교육기회의 균등제공을 위한 학교교육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립교육기구인 학무아문(學務衙門)을 설치하고 1895년 2월에는 '교육조서'를 발표하였다. 조서의 내용은 "부강하고 독립된 나라는 모두 인민의 지식이 개명하였고, 지식의 개명은 교육의 선미로 되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보존하는 근본이라"는 취지 아래서 작성되었다. 2이 국가보존의 근본을 위해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학문 추구와 아울러 덕육(德育), 체육(體育), 지육(知育)을 교육의 3대 강령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어학교, 소학교, 중학교, 의학교, 상공학교 등다양한 관공립학교들을 세웠다. 그러나 열악한 교육 환경과 불완전한 교육시스템으로인해 이러한 초창기 관공립학교들은 기독교계통의 사립학교들이나 민족사학들의 인기에 미치지는 못했다.

¹상게서,

²상게서, 148, 149

마지막으로 민족사학들 또한 근대교육의 중심에 있었다. 1895년에 민영환에 의해서 설립된 황화학교를 시작으로 엄주익의 양정학교(1905), 이용익의 보성학교(1905, 현 고려대학교의 전신), 신규식의 중동학교(1906), 명신(숙명)학교(1906, 숙명여자대학교의 전신), 안창호의 대성학교(1907), 이승훈의 오산학교(1907), 이상설의 서전서숙(1906)과 간도의 명동학교(1908) 등 개화사상에 기초해 국민을 계몽하고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민족사학들이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 특별히 민족사학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해 국권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민족을 구하기 위한 일념으로 교육사업에 뜻을 둔 애국지사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 1 이런 교육열풍으로 인해 1910년까지 전국적으로 학부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수는 [표 1]에 보듯이 823개의 종교학교를 포함해 2,25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표 1] 학부(學部) 인가 사립학교수

(1910. 5. 현재)

| 학교종별 | 보통 | 고등 | 실업 | 각종 | 종교 | 계 |
|------------|----|----|----|------|-----|-------|
| 도별 | 학교 | 학교 | 학교 | 학교 | 학교 | /1 |
| 한성부 | 1 | 1 | 2 | 66 | 24 | 94 |
| 경기도 | _ | _ | _ | 136 | 64 | 200 |
| 충 남 | 1 | _ | _ | 73 | 16 | 91 |
| 충 남 충 북 | _ | _ | _ | 41 | 18 | 48 |
| 경 남 | 3 | _ | 1 | 72 | 74 | 104 |
| 경 북 | 3 | _ | 1 | 82 | 18 | 150 |
| 전 남 | 1 | _ | _ | 31 | 4 | 36 |
| 전 북 | 4 | _ | _ | 42 | 31 | 77 |
| 강 원 | _ | _ | _ | 37 | 6 | 43 |
| 황 해 | _ | _ | _ | 104 | 182 | 286 |
| 평 남 | _ | _ | _ | 189 | 254 | 443 |
| 평 북 | _ | _ | 1 | 279 | 121 | 401 |
| 함 남 | 2 | 1 | _ | 194 | 21 | 218 |
| 함 북 | _ | _ | 3 | 56 | _ | 59 |
| 계 | 16 | 2 | 7 | 1402 | 823 | 2,250 |

2. 삼육대학교와 근대교육

삼육대학교의 주체인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본 대학의 전신인 의명학교를 세운 것은 바로 이 시기, 즉 한국 근대교육의 르네상스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의명학교는 위의

¹상게서, 166-173.

²상게서, 167.

[표 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평안남도에 있던 254개 종교학교들 가운데 하나로 순안에 세워진 학교였다. 개교할 당시 보통과 4개년, 고등과 3개년의 인가를 받으므로 확실한 중등교육 기관으로 시작되었다. 여러모로 볼 때 의명학교는 한국 근대교육의 특징들 중 두 번째 유형, 즉 서양 선교사의 지원으로 세워진 교회학교였다. 앞으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의명학교는 재림교회 미국 선교사인 스미스가 미국에 사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순안 지역의 재림교인들과 힘을 합쳐 세운 학교였다. 이렇게 세워진학교였기 때문에 의명학교 역시 다른 기독교계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근대교육의제도적 틀 속에서 교육 사명을 완수하고자 노력하였다.

의명학교는 "재림교회 안에 있는 청년 남녀의 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교회 청소년들을 양성하기 위한 종교적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교육시킨다는 점에서 계몽과 민족정신을 함양한 민족교육의 목적과도 부합했으며, 새로운서구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신문화 수용 및 개화사상을 앞세운 근대교육과도 부합하는 교육이었다. 따라서 의명학교 역시 근대교육 기관으로서 개화기에한국 근대화에 일익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의명학교는 학교 시스템 및 교과과정(curriculum) 운영에 있어서 개화기 한국 근대교육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육과 실업교육 등 명실상부한 삼육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도 갖추었다. 이로인해 의명학교는 당시 대도시가 아닌 곳에 위치해 있었으면서도 선구적인 근대학교로서의 위상을 갖추었다. 의명학교는 순안지역의 자랑이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꿈의 공간이기도 했다. 특별히 외국에서 온 교사들에 의해서 선진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실 한 편에는 의사의 진료실과 작은 인쇄실 등도 갖추어 교육 사업이외에도 의료사업과 출판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진정한 근대화 교육의 산실이되었다. 이 의미 있는 의명학교가 설립된 배경에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¹이경일, "의명학교 연혁," 교회지남, 1930년 2월호, 6.

제2장 교육사업의 여명기 (1904~1906)

한국에서 재림교회의 교육사업은 선교사업과 마찬가지로 1904년에 시작되었다. 이 미 언급한 것처럼 초기 한국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일본의 쿠니야 히데 전도사를 초청하여 특별 모임을 가진 후 4개의 교회를 최초로 설립했다. 그 4 개의 교회들 중 가장먼저 세워진 교회는 용강군 입석리(선돌)에 위치한 선돌교회(1904년 9월 17일)로 창설 당시 이미 32명의 교인을 가진 든든한 교회였다. 선돌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감리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재림교인이 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기존의 교회에서 나와 초대 집사로 선임된 이학승 씨의 사랑방에서 집회를 시작하여 그해 말에 초가양통 4칸의 예배당을 건립해 본격적인 선교사업을 시작하였다. 1 당시 교인들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매일 밤 짚신 한켤레씩을 삼아서 내다 팔았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 300원으로 교회를 지은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교육 사업을 실시하였다.

1. 광염학교(光鹽學校)

선돌교회 교인들은 교회를 짓자마자 그곳에서 소학교를 시작하였다. 예배당 한 칸을 막고 그곳에 온돌을 들여 학교를 꾸미고 그곳 지역에 살던 어린이들 10여명을 모아 놓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시 교사는 이근억이었는데, 그는 방 한 쪽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2 이근억은 당시에 그 동리의 유지였었는데, 10여년 후인 1915년에 정문국과 함께 한국인 최초의 안수 목사가 되는 인물이었다. 선돌교인들은 이 학교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빛이라"(마 5:13, 14)는 말씀에 기초해서 광염학교라 명명하였다.

2. 주흥리교회에서 운영한 사숙(私塾)

초창기 재림교회 중의 하나인 주흥리교회는 평남 용강군 양곡면 주흥리에 살고 있던 정원걸, 김승호, 노봉진 등과 같은 초기 재림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1904년에 예배소 형태로 설립되었다. 이 교회는 중심 인물이었던 정원걸이 문서전도로, 노봉진이 자

¹김재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북한교회사(서울: 시조사, 1993), 31, 32.

²선돌교회에서 운영한 학교가 재림교회 최초의 학교였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들은 미국 대충회 본부로 전달되어 선교소식란에 실리게 된다. F. W. Field, "Japan," Review and Herald, March 16, 1905, 14: 이영린, 138.

녀(원호, 사라)들의 교육 문제로 각각 떠나게 됨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문을 닫았다가 1929년 초에 다시 문을 열게 된다.1 이 교회의 중심인물이었던 김승호는 이 마을 서당을 넘겨받은 후 개량사숙으로 만들어 직접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다.2 이 사숙은 재림교회의 공식 교육 사업의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광염학교와 더불어 당시 재림교인들이 교육사업에 보여준 특별한 관심을 반영해 준다.

3. 순안사숙(順安私塾)

재림교회 교육사업의 여명기에 있어서 세 번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으로 순안사숙이 있다. 순안사숙은 재림교회 선교 본부가 진남포에서 순안으로 옮기게 되면서 마련된 순안교회에서 시작한 서당식 학원이었다. 순안에 재림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그지방에 유지로 있던 김두형이 재림기별을 받아들인 계기를 통해서였다. 원래 장로교인이었던 김두형은 순안의 지방 유지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1905년 어느 날, 김두형은 우연히 김응조라는 재림교인을 만나게 된다. 김응조는 1년전에 진남포에서 재림기별을 받아들인 초기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재림교인이 된것 때문에 당시 개신교 미국인이 경영하던 과수원에서 일하던 아들이 해고될 위험에놓이자 아들을 위해 고향을 떠나 숙천으로 가던 중 순안에 들렸다가 김두형을 만나게된다.3 이런 인연으로 김두형은 김응조로부터 기별을 듣고 재림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해 11월 재림교회 초대 선교사인 스미스가내한하여 진남포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미국인 선교사와 접촉하여 재림교회 기별을 깊이 공부한 후 순안에 거주하는 재림교인이 되었다.

그 후 순안 지역에 선교가 이루어져 스미스 목사는 1906년 5월경에 22명에게 침례를 베풀게 되었다. 4 이렇게 해서 늘어난 신자들은 스미스 목사와 더불어 10월경에 순안면 남창리에 초가 한 채를 구입하여 교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5 그 초가는 스미스 목사의 사택 겸 예배소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순안 지역의 중심인물이었던 김두형이 스미스 목사에게 선교본부를 진남포에서 순안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하였고, 스미스 목사도 순안이 선교본부로서 더 적합한 곳으로 판단해 내려진 결정이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순안에서 시작되었고 그곳에 선교본부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후 김두형 등 순안교회 교인들은 이 예배당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병행하게

¹김재신, 북한교회사, 37.

²이영린, 138.

³상게서, 39.

⁴W. R. Smith, "Korea," Review and Herald, June 21, 1906. 15

⁵F. W. Field, "Second Trip to Korea," Review and Herald, March 14, 1907. 14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순안사숙이었다. 순안사숙은 순안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들과 주변 마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문을 가르치는 서당식 학원이었다. 교사로는 김병엽 선생이 수고하였으며, 학생 수는 20여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1

순안사숙이 시작된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초기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1906년 10월 10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이 날이 삼육대학교의 개교기념일이 되었다.² 이 순안사숙은 스미스 목사와 한국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본격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설립한 청소년 양성학교(Training School)³가 등장하기 전까지 순안에서 교인들에 의해 운영된 글방이었다. 스미스 목사를 중심으로 한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건립에 뜻을 두고 노력하던 중 1907년에 평안남도 관찰사의 도움으로 순안사숙의 맞은편에 부지를 얻어 학교를 세우고정식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삼육대학교의 전신인 의명학교(義明學校)였다.⁴ 이처럼 재림교회 고등교육의 효시가 순안에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순안은 삼육교육의 요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4. 여명기 교육 사업의 의의

의명학교의 설립과 더불어 본격적인 중등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이전까지 재림교회는 교육사업의 여명기를 보냈다. 이 여명기의 기간 동안에 초창기 재림교인들이 보여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결국 오늘의 삼육대학교가 있게 한 정신적 원동력이었다. 1904년 선교의 시작과 더불어 이 땅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한 재림교회가 이 여명기에 보여준 정신은 교육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였다.

광염학교와 순안사숙 등에서 들어난 것처럼 초창기 재림교인들이 보여준 교육에 대한 열정은 당시 일반 기독교가 이 땅에서 보여준 열정과 동일한 것이었다. 재림교회는 1904년 광염학교에서 1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래 어린이 교육에 뜻을

¹학생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기록상 알 수 없지만, 대총회 보고에는 1906년에 한국에는 학교 2개, 교사 2명, 학생수 35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두 학교는 주흥리에서 운영되었던 사숙을 제외한 광염학교(10여명)와 순안사숙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순안사숙의 학생 수는 20여명 내외였음을 알 수 있다. *Review and Herald*, September 19, 1907, 22.

²의명학교의 설립일에 대한 재립교회 사학자들의 의견은 두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개교기념일과 관련된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이영린, 144; 오만규, "삼육대학교의 전신인 의명학교의 설립연대와 그 설립주체에 대하여," 신계훈 박사 회갑 기념논문집, 2001, 151-171;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서울: 삼육대학교 출판부, 1997), 114, 115; 이경일, "의명학교 연혁," 교회지남, 1930년 2월호, 6.

³스미스 목사는 자신이 설립한 순안의 학교를 "양성학교"(training School)로 표현하고 있다. W. R. Smith, "Korea," *Review and Herald*, October 24, 1907, 18.

⁴W. H. Smith, "Korea," Review and Herald, March 19, 1908, 14.

둔 지역교회의 노력으로 5년만인 1909년에 12개 학교, 179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이 시기에 각 학교에서 봉사한 교사들은 18명이었다.1 이 열두개의 학교들은 이듬해인 1910년에 경술국치(庚戌國恥)와 더불어 대부분 폐교되고 의명학교만 남게 된다. 하지만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교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919년에 이르러서는 다시 12개의 학교에서 286명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게 되었고, 1925년에 이르러서는 31개의 학교에 1,081명의 학생들로 늘어나게 된다.2

| 연 대 | 교회학교수 | 학생수 | 교사수 | 비 고 |
|------|-------|-------|-----|----------|
| 1905 | 1 | 18 | | 광염학교 |
| 1906 | 2 | 35 | 2 | |
| 1909 | 12 | 179 | 18 | |
| 1910 | 1 | 16 | 4 | 의명학교만 남음 |
| 1919 | 12 | 286 | 15 | |
| 1925 | 31 | 1,081 | 50 | |
| 1935 | 23 | 1,484 | 46 | |

[표 2] 초창기 재림교회 학교 통계표

이처럼 여명기에 뿌려진 교육사업의 씨앗은 매우 미미했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초창기 재림교인들이 보여준 교육의 열정은 일제하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학교로서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해주었다. 그 결과 100여 년이 지난 현재 재림교회는 30개의 각급학교를 운영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3삼육대학교는 바로 이러한 재림교회의 교육적 열정에 의해서 탄생되었다. 지금까지 100년 동안 평안남도 순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회기동과 현재의 공릉동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적 과정을 지나오면서 삼육교육이념과 그 이념에 기초한 교육의 목적과 정신을 유지해 온 것도 바로 이러한 초창기 지도자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기도의 결과였다.

삼육교육의 주체인 재림교회가 선교 초창기에 교육사업을 포함해 의료, 출판 등 문명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당시 우리 민족의 필요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었음을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스미스 목사를 위시한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순안에 선교본부를 두고 본격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는 사실상 교육사업의 여명기에 재림교인들이 보여준 교육에 대한 열정 속에 자라고 있었다.

¹Review and Herald, October 6, 1910, 22.

²교회지남, 1920년 1월호, 12; 교회지남, 1926년 9월호, 25.

³²⁰⁰⁸년 현재 재림교회에 소속된 각급학교는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7개교, 대학 1개교, 대학교 1개교, 대학원 3개교가 있다.

제3장 의명학교의 설립

 $(1907 \sim 1916)$

한국 재림교회 근대교육의 중심이자 삼육대학교의 전신이 된 의명학교는 본격적인 교육사업을 통해 재림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초창기 한국 재림교인들과 초대 선교사 스미스 목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초기 교인들은 삼육교육기관을 설립함으로써 한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비전도 함께 가지고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교육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재림교회의 학교는 초창기인 1907년에는 청소년 양성학교 개념으로 세워졌으며, 서서히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민족적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1909년에 이르러서는 의명학교로 개명하고 순안 지역의 중심 사학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 역사의 중심에는 초대 선교사 스미스 목사가 있었다.

1. 청소년 양성학교 설립(1907)

1905년 진남포에 상륙해 이듬해에 순안으로 교단의 본부를 옮기면서 본격적인 한국 선교를 시작한 스미스 목사는 선교 초기부터 교회 사업을 위해 우수한 청년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인식하고 학교를 설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그의 초기 마음은 그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우리 교회에 입교한 청년들 중 많은 이들이 총명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청년들을 학교에 모아 선교지의 일을 할 수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한국에서 학교를 시작할 수가 있느냐가 관건이었다.1

스미스 목사가 한국에 양성학교를 설립할 뜻을 세우자 필드 목사 등 일본에 있던 선교본부의 지도자들은 양성학교는 일본에 세우고 한국의 청년들도 일본에 와서 공부 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교인들은 반드시 한국에 학교를 세우기를 원했다. 이것은 교회 학교이지만 그래도 한국 땅에 세워져야만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 가 한국 근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민족적 정신과 더불어 한국 선교사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의 표현이었다. 이처럼 스미스 목사의 양성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와 재림교인들의 강렬한 의지를 합쳐 한국 재림교회는 교단의 세계본부의 도움 없이도 이 땅에 근대 교육 기관을 세우게 되었다.

¹W. R. 스미스, 여명기의 한국 땅에 쏟은 복음의 열정(*The Passion of a Gospel Pioneer in Korea*), 김상래 편역(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06), 59.

1) 첫 선교사 스미스 목사(1906)1

스미스 목사는 1876년 3월 11일 캔사스 주(州)의 하워드(Howard) 시 인근에서 아버지 윌리엄 하이럼 스미스(William Hiram Smith)와 어머니 사라 앤 스미스(Sarah Ann Smith)의 일곱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아이다호(Idaho) 주(州)의보이즈(Boise)에서 보낸 스미스는 18세 되던 해인 1894년 가을에 재림교회 학교인왈라왈라(Wala Wala) 대학²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일신상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었다가 1896년 가을에 다시 피스(Piece) 대학에 들어갔다. 이곳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졸업이 늦어져 1901년에 가서야 학업을 마치게 되었다. 졸업 후 상컬럼비아(Upper Columbia) 합회에서 사역을 하던 스미스 목사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州)의 넬슨(Nelson)에서 개최된 장막회에 참여했다가 간호사인 애디 카나한(Addie Carnahan)을 만났다. 이후 건강(폐렴)이 다시 악화되어 병세가 호전될 때까지 부모가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하였다. 1903년에 건강이 호전되어 다시 장막회에 참석한 스미스 목사는 그해 12월 30일에 오리곤 주(州)의 엘진(Elgin)에 있던 신부 부모의 집에서 애디와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다호 주(州)에 있는 냄파(Nampa)에서 신혼살림을 꾸몄다. 이후 곧바로 오리건 주(州)의 베이커(Baker)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고 1904년부터 1905년까지 교회를 섬겼다.

이 과정에서 스미스 목사는 1905년 오리건 주(州)에서 열린 장막집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그해 7월에 야카마(Yakama) 계곡에서 장막부흥회를 인도하던 중 한국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스미스 목사는 한국 선교사로 오게 되었다. 당시 스미스 목사는 아내와 생후 9개월 된 딸과 함께 1905년 9월 18일 캐나다의 밴쿠버(Vancouver)에서 배를 타고 18일 만에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일본과 한국 선교의 책임자인 필드 목사를 만나 도쿄로 갔다. 도쿄에 잠시 머물면서 스미스 목사는 한국행 배를 타기 전까지 고베에 있는 위생병원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그가 한국행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후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은 매우 힘든 여정이었다. 특별히 배 안에서는 멀미를 했고, 기차 안에서는 난방이되지 않아 추위와 싸워야 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11월 17일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다. 서울에 도착한 스미스 목사는 장로교회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의 호의로 집을 구해 그곳에 머물면서 한국말을 배웠다. 그러나 그 집이 부유한 영국인에게 팔리고, 교인들 대부분이 몰려 있던 진남포에서 활동하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가 진남포로

¹스미스 목사와 관련된 내용은 그의 자서전에서 참고하였다. 상게서.

²왈라왈라 대학은 오리건 주에서 운영되었던 3개의 재림교회 대학을 통합하여 1892년 왈라왈라 시에 설립한 학교로 재림교회가 삼육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교육사업을 시작하던 시기에 세워진 학교이다. Schwarz and Greenleaf, 194.

이주하기를 청하므로 1906년 봄에 진남포로 이주했다. 당시 진남포는 개항지였지만 여전히 대도시로부터 떨어진 시골지역이었기 때문에 스미스 선교사는 정착한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순안에서 집회소를 시작한 김두형과의 만남으로 순안에 대한 정보를 듣고 선교본부와 사택을 순안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그해 여름 드디어 순안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순안에 선교본부와 사택을 구입한 후 스미스 목사가 맨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다.

2) 순안(順安)에 대하여

순안은 평안남도 평원군 내에 위치한 면(面) 단위의 마을이었다. 본래 평양(平壤)의 서촌(西村)이었던 이 지역은 1895년 한 때 고종에 의해 군(郡)으로 승격되었었지만 1914년에 평원군에 병합되어 행정구역상의 위치가 격하되었다. 평원군은 숙천, 순안, 영유 등 3개 군을 통합한 광활한 평야지대를 가진 행정구역이 되었다. 평원군에는 모두 17개 면(面)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순안면이다. 순안면에는 21개 리(里)가 있었고, 특별히 순안 면소재지에는 남창리, 군상리, 포정리, 관북리 등 4개 리(里)가 포함되어 있었다. 청소년 양성학교는 바로 이 순안면 포정리에 세워졌다.1

순안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기본적인 문화시설을 갖춘 곳이었다.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스미스 목사로 하여금 선교본부를 진남포에서 순안으로 옮기도록 이끌어주었다. 스미스 목사는 순안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 놓고 있다.

순안은 평양에서 철도를 따라 북쪽으로 약 2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순안은 도시가 아닌 마을이었다. 그러나 작은 가게와 우체국, 철도역이 있었다.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에서는 한국의 모든 물품을 구경할 수 있었고 전화를 하 거나 전보를 칠 수도 있었다.²

스미스 목사는 진남포보다는 훨씬 조건이 양호했던 순안에서 좀 더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다. 그의 설명대로 순안에는 우체국, 곡물검사출장소, 농업창고, 금융조합, 철도역 등 관공서들이 있었고, 보통강 하류에는 사금광이 있어 경제활동도 활발한 곳이었다. 스미스 목사가 재림교회의 선교본부를 세운 남창리에는 천주교 성당과 장로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종교 활동도 활발한 곳이었다. 특별히 순안은 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와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 있는 도로가 있어서 비교적 교통이 양호한 곳이었다. 게다가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평양과 가까워 생활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곳이었다.³ 순안에는 재림교회에 의해서 설립된 양성학교(의명학교, 후에

¹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17, 118.

²스미스, 61.

³현재 순안에는 평양 국제공항이 있어 평양 문화권에 포함되어 있다.

순안중학교가 됨)가 최초의 근대식 학교로 설립되었고, 1911년에 포정초등학교, 1927년에 순안 중견농민학교, 1939년에 농민학교(공립학교)가 각각 설립되어 교육시설도 갖추게 되었다.¹

스미스 목사가 순안에 학교를 세우고자 했을 때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그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별히 당시 평양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던 임기반은 순안에 학교를 세우는 계획에 반대하였다. 임기반은 학교를 세우려면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왕 학교를 세우려면 다른 학교 못지않은 큰학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미스 목사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임기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 큰 학교를 세울만한 돈이 없었다. 스미스 목사가 학교 설립의 뜻을 일본선교본부에 피력했을 때 선교본부의 지도자들은 한국에 학교를 세우는 것에 반대를 하였다. 이로 인해 대총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교육사업은 자력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스미스 목사는 대도시인 평양에 학교를 세우자는 임기반 씨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최초에 스미스 목사가 설립하고자 했던 학교의 형태는 한국 재림교회의 복음 및 교육 사업을 담당할 청년들을 양성하기 위한 사역자 양성과정(Korean Workers Training Course) 개념이었다. 2 따라서 스미스 목사가 생각할 때 평양과 같은 대도시는 이러한 교육 정신을 구현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니었다. 앞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스미스 목사는 19세기 말 재림교회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던 진보적 교육운동과 철학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런 교육이념에 의해서 설립된 왈라왈라 대학을 다녔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스미스 목사는 재림교회가 추구하는 삼육교육 이념의 구현은 대도시보다는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시골 지역이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세우고자 했던 양성학교 역시 이런 삼육교육 이념에 부합하는 곳에서 교육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순안은 이런 점에서 적합한 장소였다. 이렇게 해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삼육교육 사업이 한국에서 시작되게 되었고 그 중심에 순안이라는 지방이 있게 되었다.

3) 청소년 양성학교 설립

스미스 목사가 양성학교 설립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은 재림교회의 최초의 여선교사인 샤펜버그(Mimi Scharffenberg, 史嚴泰)가 내한하면서부터였다. 샤펜버그는 23세의 나이로 한국선교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받고 1907년 1월에 한국에

¹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17.

²스미스, 69, 70.

입국한 선교사였다.1 그녀는 1883년 11월 7일에 미국의 미주리 주(州)에서 출생하였다. 18세 때부터 본 교회 전도사업에 참여한 그녀는 위스콘신 주(州)에서 4년 정도 선교활동을 하다가 한국 선교에 대한 부름을 받게 되었다. 샤펜버그가 한국 선교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녀가 경험한 매우 특별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 어느 날 그녀는 방문을 갔다가 늦게 돌아와서 잠을 자던 중 꿈을 꾸게 되었다. 그 꿈속에서 강 건너편 쪽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두 팔을 벌리고 그들에게 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 날 그녀는 대총회로부터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열어보니한국에 선교사로 갈 것을 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처음 들어본 샤펜버그는 도서관으로 달려가 백과사전을 펴서 한국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꿈에 본 사람들과 꼭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긴 그녀는 한국 선교사의 길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동양 순례길에 오른 프레스캇 목사와 동행하여 일본을 거쳐 한국에 오게 되었다.

스미스 목사는 샤펜버그 외에 한국인 지도자들이었던 김두형, 임기반 등과 청소년 양성학교 설립을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들 중 특별히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김두형이었다. 순안의 지방 공무원으로 재력도 있고 대외 섭외 능력을 갖춘 김두형은 평안남도 관찰사를 찾아가 순안지역에 중등교육기관을 설립할 뜻을 전하였다. 이에 관찰사는 김두형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순안 포정리 석박산 기슭에 위치한 땅 45에이커(55,000여 평)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다. 포정리는 재림교회 본부 및 사택이 있던 남창리의 맞은 편 지역으로 학교를 세우기에좋은 곳이었다. 다만 그곳에 두 채의 신당이 있어 한국 지도자들은 학교 부지로는 적당한 곳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 같다. 이런 이유로 김두형은 부지를 팔고 다른 부지를 사자고 제안하였고, 임기반 역시 무덤이 있는 곳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를 평양에 세울 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스미스 목사는 그 모든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기증받은 땅에 학교를 지을 뜻을 분명히 밝히고 계획대로 양성학교 건립을 추진하였다.

비록 소박한 규모의 학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건물을 세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건물을 지을 예산이 필요했다. 지도자들은 관찰사로부터 학교부지와 그 터 위에 서 있던 두 채의 신당을 헐고 이미 확보한 목재와 기와 등의 건축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건축을 위한 나머지 경비가 문제였

¹⁹⁰⁷년에 내한한 샤펜버그는 1919년 질병을 얻어 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12년 동안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하였다. 그녀는 의명학교의 교사로, 안식일학교부 주임으로, 시조사 편집국장으로 한국 재림교회 사업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겼다. R. T. Dowsett, "Mimi T. Scharffenberg," Review and Herald, January 22, 1920, 4; 이영린, 51.

²스미스, 68, 69.

다. 한국 교회의 재정 상황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스미스 목사와 샤펜버그는 각각 미국에 있는 부모들과 친지들에게 편지를 보내 양성학교를 위한 건축 자금을 모금하였다. 이에 스미스 목사의 장인과 장모가 170엔, 샤펜버그의 여동생인 왕거린(Theodora Wangerin, 王大雅, 1909년에 남편 王雅時 목사와 함께 한국에 선교사로 옴)이 200엔(레이먼드가 헌금한 156엔과 3명의 교인이 헌금한 44엔을 모아서 보냄), 샤펜버그의 부모와 친구들이 오르간 구입비로 보내 준 123엔(오르간은 이미 구입하고 난 후여서 건축자금으로 활용함), 대총회 보조금 200엔 등 총 693엔의 건축자금이 모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 자금과 확보한 목재 및 기와 등의 건축 자재를 활용하여 1907년에 한식 기와집 7간(60×12 피트)을 지었다.1

건축을 마친 후 지도자들은 양성학교 설립허가서를 평안남도 관찰사에게 제출하여 (1907년 6월 18일) 같은 해 9월 12일 보통과(4년제)와 고등과(3년제)의 학교설립 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학교 운영을 시작하였다.2 개교 당시 학생은 남학생이 5명(이 근억, 백낙근, 김예준, 김병룡, 유창섭)과 여학생이 6명(강창신, 김유덕, 유창선, 임신 덕, 임신일, 임영신) 등 모두 11명이었고, 스미스, 샤펜버그, 임기반, 하동협 등이 교 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생들의 연령은 9세부터 29세까지 다양했으며 남학생들은 한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여학생들은 대부분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해 새로운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 모두는 어렵게 시작하게 된 근대교육 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으며, 그 결과 미국인 교사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들었다. 이들의 열정은 우리 민족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최초에는 스미스 목사와 샤펜버그가 성경과 산수를 가르치고, 임기반 선생이 한문을 가르쳤다. 그러나 학생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교육과정이 개편됨에 따라 스미 스 목사는 영어, 세계사, 기독교사 등을 가르쳤고, 샤펜버그는 성경, 산수, 생리학, 지 리학 등을 가르쳤다. 한국인 선생으로는 임기반 선생이 조선어와 역사를 가르쳤고, 하 동협 선생이 한문을 가르쳤으며, 최초의 여학생이었던 강창신 선생은 읽기와 쓰기 등 을 가르쳤다. 이렇게 학교 건물에 대한 건축이 마쳐지고 교과과정들이 확립되고, 학생 들이 입학을 하여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순안에 세워진 양성학교는 다양한 근대식 교 과목들을 가르치는 학교로 정착하게 되었다.3

¹W. R. Smith, "Korea," Review and Herald, March 19, 1908, 14.

²이영린 교수는 순안의 양성학교의 시작이 1907년 12월 9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샤펜버그가 12월 9일에 "여학교"를 시작한 것으로 인한 착오로 이해된다. Mimi Scharffenberg, "Korea," Review and Herald, May 16, 1908. 설립자인 스미스는 "1907년 가을"에 설립한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양성학교의 시작은 정식인가를 받아 학교를 개교한 1907년 9월 12일로 보는 것이타당하다. 스미스, 69; 오만규, "초대선교사 W. R. Smith의 한국 부임과 선교본부의 이전 및 사역자양성학교의 설립," 선교와 사회, 2000, 139, 140.

³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16, 117.

2. 양성학교에서 의명학교로(1907~1910)

양성학교는 원래 "남학교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건물을 기증"받았기 때문에 남자들만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1 그러나 곧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12월 9일 샤펜버그의 지도하에 여학생들도 모집하였다. 이를 위해 교실 1간을 여학생들의 교육 공간으로 만들었다. 1908년에 이르러서 양성학교에는 남학생 12명, 여학생 6명이 공부를 하게 된다. 여학생은 원래 8명으로 시작했으나 한 여학생은 남편의 반대로, 또 다른 여학생은 시어머니의 반대로 결국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2양성학교가 설립된 이듬해인 1908년은 순안의 양성학교와 그 학교의 교육주체인 재림교회 안에서 중요한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첫째는 러슬(Riley Russell, 魯雪) 의사가 내한함으로써 교육사업과 더불어 본격적인 의료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러슬의 내한은 스미스 목사의 간청에 따른 결과였다. 순안으로 거처를 옮긴 직후 스미스 목사 가족은 큰 비극을 맞이하였다. 그의 어린 딸[Willina]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악성 이질에 걸리게 되었다. 스미스 목사는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구하러 평양에 다녀와야 했다. 그는 기차 삯을 아끼기위해 48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갔다 왔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스미스 목사 자신마저 악성 이질에 걸리고 말았다. 다행히 간호사였던 아내 애디(Addie)의 도움으로 스미스의 병은 치료되었지만 어린 딸은 호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스미스는 딸을 일본 고베에 있는 위생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 스미스 목사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 집을 지었고, 어린 딸도 어느 정도 회복되어 그 새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얼마 후 악성 이질이 재발해서 딸은 결국 국고 말았다. 스미스 목사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얼마나 슬펐는지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다. 3이 일을 계기로 스미스 목사는 미국에 있는 대총회 본부로 의료선교사 파송을 요청하게 되었고 결국 러슬 의사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이었다.

한국 재림교회의 첫 번째 의료선교사로 내한한 러슬 의사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George Washington University)를 막 졸업하고 외방선교를 지원한 열정적인 청년 이었다. 대총회로부터 한국에 의료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러슬은 간호사로서 2년간 의학을 공부한 아내와 함께 1908년 8월 워싱턴 주(州) 시애틀에서 배를 타고 한달 간의 여정 끝에 일본을 거쳐 그해 9월에 순안에 도착하였다. 이때 남랭캐스터 아카데미

¹Frederick Griggs, "Report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Review and Herald, May 20, 1909, 6.

²Scharffenberg, 16.

³스미스, 65.

(South Lancaster Academy) 사범과를 졸업한 스캇(Helen May Scottt)도 함께 내한 하여 교육사업에 힘을 보태게 되었다. 1 러슬 부부는 스미스 부부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스캇은 샤펜버그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이들은 순안 양성학교를 거점으로 의료 및 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교단 지도부는 교육과 의료 사업을 위해 양성학교 건물을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나누어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 스미스 목사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우리는 60×12 피트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 건물의 한 부분은 여학생들을, 다른 한 부분은 남학생들을 위하여 쓰고, 한쪽 끝은 러슬 의사의 진료실로, 그리고 다른 한 방은 작은 인쇄실로 쓴다.²

지도자들은 7간짜리 양성학교 건물을 나누어 2간은 남자교실, 1간은 여자교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예배실로 사용했다. 그리고 건물의 좌우편은 각각 진료실과 작은 인쇄실로 활용하였다. 이로서 순안 양성학교 건물을 중심으로 교육과 의료, 출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둘째는 러슬이 입국한 지 한 달 후인 1908년 10월에 또 다른 선교사인 버터필드 (C. L. Butterfield, 田時說) 목사가 내한한 것이다. 버터필드의 내한과 더불어 한국 재림교회와 순안 양성학교 모두에 중요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한국 재림 교회의 행정체계를 바꾸고 본부를 순안에서 서울로 옮기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있 어서 책임자가 되었다. 이러한 행정적 변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대총회에서 는 부회장인 에번스(L. H. Evans) 목사로 하여금 한국 순회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에 대총회의 명령을 받은 에번스 목사는 1908년 11월 한국에 와서 열흘간 체류하면 서 순안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여 일본미션에 소속되어 있는 조선을 조선미션(Korea Mission)으로 독립시켰다. 그리고 그 미션의 총책임자인 미션장에 버터필드 목사를 임명하였다. 아울러 서기겸 회계에 스미스 목사, 의료부 주임에 러슬 의사, 교육부 주 임에 샤펜버그, 출판부 주임에 스미스 목사 겸임 등을 택함으로써 한국 재림교회의 행정적 체계를 확립하였다.3 이러한 행정적 결정과 더불어 중요한 결정이 하나 더 내려졌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본부를 순안에서 서울로 옮기기로 한 것이었다. 이 결정 에 따라 버터필드, 러슬, 스미스, 임기반, 김승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본부이전 추진위 원회가 구성되었고, 1년이 채 못 된 1909년 9월에 교회 본부는 서울로 이전되었다. 이로 인해 양성학교 설립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샤펜버그가 서울로 이주하고 그 자리는 스캇이 대신 맡게 된다. 한편 스미스 목사는 1909년 5월에 미국 워싱턴 D.C.

¹Review and Herald, October 22, 1908, 22; Riley Russell, "Doctor Russell's Story," 1; 이영란, 40, 41.

²W. R. Smith, "Report at General Conference," *Review and Herald*, July 1, 1909, 14. 3이영린, 41.

에서 개최되는 대총회에 한국 대표로 선출되어 그해 3월에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이에 동년 9월부터 러슬 의사가 그 양성학교의 책임을 맡이 제2대 교장에 취임하게 된다.

셋째는 '사립학교령'이 반포되어 학교의 재인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사립학교령'은 일제가 한국의 식민지화를 영속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을 정치에서 분리시켜 우민화정책을 추진하는 의도에서 공포된 것이었다.1 기독교계 인사들과 민족운동가 등의 민간인들이 많은 곳에서 사립학교를 만들어 교육구국운동에 앞장서자식민지 영구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제는 사립학교를 축소시키고 관공립학교를 증대시키기 위해 1908년 8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였다. 이 법에 따라서 사립학교들은 학부대신(學部大臣)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했으며, 교원의 자격과 교과서 등에 있어서 일정부분 제재를 받게 되었다. 일제는 이 법을 통하여 한국인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의지를 꺾으려 했으며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증여하는 길을 막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학생들이 사립학교로 몰리는 경향을 막고 관공립학교를 부흥시켜보고자 했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우민화 정책의 추진이라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사립학교령'이 반포됨에 따라서 순안의 양성학교도 학부대신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다시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교단 본부에서는 1909년 9월에 버 터필드 목사의 명의로 학교설립허가원을 학부에 제출하였는데 비로소 학교명을 의명 학교²로 개명하였으며, 정규 중학과정으로 신청하였다.³ 의명학교의 설립인가는 1910년 1월 10일에 나왔다. 이에 본격적으로 중학과정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을 시작하였는데 그때 입학한 학생은 모두 25명이었다. 교사진은 스미스를 대신하여 교

¹한국교육100년사위원회, 174, 175.

^{2&}quot;의명"(義明)이란 이름은 "밝은 진리"라는 뜻으로 당시 교사 중 한 사람이었던 하동협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량, 기독교교육의 이해와 실제: 삼육교육을 중심으로(서울: 삼육대학교, 1992), 197.

³학교를 정규 중학과정으로 신청했다는 것은 1899년 4월 공포된 '중학교 관제'이후 한국에서 실시했던 최고학교 과정인 중학교 교육을 말하는 것인데, 이 '중학교 관제'는 1906년에 '고등학교령'으로, 1908년에는 '고등학교 시행규칙'으로 연속해서 공포된 '고등학교령'에 따라서 중학교가 고등학교로 개칭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학과 관제에서는 심상과 4년, 고등과 3년 도합 7년의 연한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고등과가 설치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심상과 4년만을 운영하였다. 이후 고등학교령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4년), 보습과(2년 이내)를 졸업한 자가 입학할 수있으며 수업 연한은 본과 4년, 예과 및 보습과를 각각 1년 이내로 하였다. 하지만 1909년 다시 개정하여 본과 4년을 지방 실정에 따라서 1년 단축할 수 있게 하였고 예과는 폐지하였다. 이 '고등학교령'은 1911년 '조선교육령'에 의해 폐지되어 고등학교가 고등보통학교로 변화되었으며, 그 뒤 3차 조선교육령(1938년) 때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개칭하여 5년제 과정으로 변모되었다. 이런 교육법의변화에 따라서 볼 때 의명학교가 중학과정으로 설립허가를 낸 것은 당시 편재상 최고 고등교육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의명학교가 삼육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하나의 이유이다. 한국교육100년사위원회, 164, 165.

장을 맡은 러슬과 더불어 이근억, 하동협, 김창세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순 안에 세워진 양성학교는 당시 최고교육과정인 중학과정으로 운영된 의명학교가 되었 다.

3. 여학교의 이전(1911)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명학교는 남학생들만을 위한 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원래 양성학교는 평안남도 관찰사로부터 남학교로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의 교육이 필요하여 여학생들도 뽑아 같은 건물에서 함께 교육을 실시하였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러나 곧 여학생들의 지원이 2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자양성학교 건물에서 할애 받은 공간(1간)에서 교육하기에는 너무 비좁아 할 수 없이 1909년 봄에 진남포 신흥동교회로 이전하게 되었다. 당시 진남포에는 교실과 주택이 딸린 집회소가 있었기 때문에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진남포의 여학교는 샤펜버그에 의해서 지도되었으나 그녀가 선교본부의 이전과 더불어 서울에서 교육부 주임을 맡게 되자 1908년 9월에 내한한 스캇에 의해지도되었다. 이후 1910년에는 다시 샤펜버그가 여학교의 책임을 맡아 서울서 진남포로 다시 이주했으나 그 해 11월 1일 여학교가 진남포에서 순안으로 다시 옮기게 되면서 또 다시 스캇의 책임 하에 놓이게 되었다.

4. 의명학교 체계 구축(1911~1916)

1910년은 우리 민족의 역사나 삼육대학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해이다. 5년 전을사늑약으로 식민지화의 야욕을 드러낸 일본은 결국 1910년 8월 강제로 우리나라를 찬탈함으로 경술국치(庚戌國恥)의 비극적 사건이 자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일제는 이듬해 8월에 제1차 '조선교육령'(1911~1922)을 공포하여 일본화에 기초한 우민화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 이 교육법의 골자는 일본신민화의 토대를 놓기 위한 일본어 보급에 있었다. 식민정책의 중심이었던 조선총독부는 이 교육령에서 "제국(帝國) 신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춘 충량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내세워 "직접 생활상 필요한 실용적 학예를 수학"하는 것만을 급선무로 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나아가 일본어 교육 등을 강조하므로 오로지 실용적인 근로인과 하급관리 및사무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육사업을 이끌고자 했다.2

¹김재신, 북한교회사, 97.

²손인수, 한국교육사 II(서울: 문음사, 1998), 632.

이런 상황 하에서도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의명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학교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배전(倍前)의 노력을 기울였다. 러슬 의사는 순안병원의 책임자로서 월평균 500여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1909년 9월부터는 스미스 목사의 뒤를 이어 의명학교의 교장(제2대 교장)을 겸임하여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돌보았다. 1 이러한 헌신적인 수고는 1910년 4월 5일에 하워드 리(Howard M. Lee, 李希萬)가 내한하여 의명학교의 제3대 교장에 취임하기 까지 계속되었다. 스캇의 제부(弟夫)였던 하워드 리는 남 랭캐스터 아카데미 직원으로 있다가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내한 후 의명학교의 총무를 역임하다 다음 해인 1911년 초에제3대 교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2 그는 교장에 취임하자마자 일반 교무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의명학교의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작업을 추진하였다.

1) 하워드 리와 의명학교의 발전

삼육대학교 역사 속에서 하워드 리를 주목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특별히 그는 의명학교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었다. 대부분의 교장들이 2년 내외의 기간 동안 직임을 수행한 반면에 하워드 리는 교장에 취임한 1910년부터 사임한 해인 1920년까지 11년 동안 의명학교를 이끌었다. 특별히 사임 후 잠시 중선대회장으로 있다가 미국으로 귀국하였던 그는 3년만인 1923년 말에 다시 내한하여 교회 지도부의 뜻에 따라 개편된 신학교의 책임을 맡기 위해다시 의명학교 교장에 취임하게 된다. 이로 인해 1924년부터 의명학교가 순안중학교로 변경되기 전인 1936년까지 다시 의명학교를 이끌게 된다. 이처럼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워드 리 목사는 의명학교의 교육사업에 있어서 핵심 인물이 되었다. 아울러 그의 아들 제임스 리(James Lee, 李濟明)와 도널드 리(Donald Lee, 李旦悅) 역시해방 후부터 삼육신학원과 삼육신학대학의 책임자로 봉사하여 삼육대학의 기틀을 놓았다.

경술국치의 해에 하워드 리가 교장에 취임하여 의명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헌신과 함께 교회 지도자들이 공식적인 회의체인 조선미션 평의원회(오늘날의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이 회의에서 지도부는 교육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결의하였다.3

¹러슬 의사의 헌신적인 의료봉사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워싱턴 포스트 紙가 그의 활약상을 "20불짜리 집에서 20,000명 환자를 치료하다"라는 기사를 통해 사진과 함께 게재함으로써 알려지게 된 것이다. Wangerin, "Early Medical Missionary Work in Korea," 4; 이영린, 178.

²I. H. Evans, "The Korean General Meeting," Review and Herald, November 24, 1910, 9. ³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21.

- ① 조선에서 대총회의 사업과 일치하는 교육사업을 행하며, 이를 구분하면 소학교, 중학교, 아카데미, 칼리지 등이다.
 - ② 교회들이 소학교를 설립하도록 권장한다.
 - ③ 순안학교를 중학교로 승격시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다.
 - ④ 잠정적으로 여학교를 순안에 둔다.
- ⑤ 학생들에게 노동의 귀중함을 가르치고, 또한 학생들이 학비를 얻게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며 실업부를 설치한다.

이러한 결의 내용은 순조롭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하워드 리 교 장은 의명학교가 삼육교육 이념을 올바로 구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발전 계 획을 이끌어 내었다. 그것은 남녀공학과 기숙사 제도, 실업교육 등을 정착시키고, 교 사(校舍) 및 예배당(chapel)을 신축한 것 등이다.

2) 기숙사제도와 남녀학교 운영

1909년 봄에 학생 수의 증가로 진남포로 이전했던 여학교는 1910년 11월 1일 다시 순안으로 이전하였다. 우선 순안면 군상리의 한 민가를 얻어서 여학교를 개교하였다. 당시의 여학교의 책임자는 스캇과 샤펜버그였고 교사는 이석관, 강창신, 김유덕, 김유신 등이었다. 이들은 여학생들에게 성경과 국어, 한문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

일제 강점 초기의 한국에서 여성들을 위한 교육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1886년에 스크랜턴(M. F. Scranton)이 한 명의 여학생을 데리고 시작한 이화학당(梨花學堂)과 그 이듬해 엘러스(A. J. Ellers)에 의하여 정신여학당이 설립될 당시 한국에서의 여성교육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에게 근대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때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관립 여학교의 설립은 그 후 18여 년이 지나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2이처럼 여학생들에게 근대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육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여성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여학교를 운영하였다.

순안으로 다시 옮긴 여학교는 곧 남학교로 설립된 의명학교에 통합되게 되었다. 물론 교육은 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남녀공학은 1921년 6월 13일에 결의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의명학교는 남녀공학이라기보다는 당분간 남학교와 여학교가 공존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3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1911년에 하워드 리가 교장에 취임한 후 보통과와 고

¹이영린, 146.

²한국교육100년사집필위원회, 136, 137.

³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33.

등과에 여학생도 모집하였다는 기록과 순안의 남녀학교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의용선교회를 조직했다는 기사를 통해서 미루어 볼 때 그 시점은 여학교를 진남포에서 순안으로 다시 옮긴 1910년 11월부터 1911년 사이로 이해할 수 있다. 1 청소년 의용선교회란 오늘날의 교회의 청년부 조직을 일컫는 것으로 당시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서 청소년 사업을 위한 조직을 갖추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런 일이었다. 특별히 의명학교는 1913년 여름에 새로운 교사(校舍)와 강당, 기숙사 등을 신축하고 남녀 모두 기숙사 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남녀학교 동시 운영 및 기숙사제도를 확립하게되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분적, 지리적인 제약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참된 교육을 받게 하고자 했던 삼육교육이념의 탁월성을 보여준다.

3) 실업교육

의명학교의 교육 환경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실업교육의 실시이다. 이미살펴본 것처럼 근대주의 교육이념의 핵심은 학문과 실업교육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인류 사회의 책임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 근대의 실용주의교육은 실업교육이나 기술교육 등을 통해 매우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었다. 재림교회의 초창기 교육사상가들 역시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삼육교육 이념에 실업교육 혹은 노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교를지을 때 가급적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교외지역을 택하게 된 것이다. 의명학교도 이런 점에서 삼육교육 이념을 구현하고자 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의명학교의 지도자들은 실업교육을 더욱 더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교단 본부로부터 5,000원의 기부금을 얻어 1911년 4월에 전지(田地) 약 5천 평을 구입한 후실업부를 설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농업에 참여하게 했다. 2 이렇게 확보한 전지(田地)는 농장과 과수원, 양장업, 축산업 등을 위한 부지로 활용되었다. 우선 농장에서는 벼, 조, 콩, 옥수수, 메밀, 목화, 보리, 밀, 무, 캐비지 등을 재배하였다. 과수원에는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등을 심어 과일들을 재배했으며, 양장업을 위해 뽕나무 3천 그루도 심었다. 3 이렇게 마련된 농장, 과수원 등지에서 학생들은 점심식사 후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노동을 통해 학비와 생활비 등을 벌면서 공부 했다. 4 노동은 보통 농장, 과수원, 양잠부, 가축부 등에서 이루어졌으며, 학

¹상게서, 121, 122.

²상게서, 122,

³A. G. Daniells, "The Korean Conference," Review and Herald, May 3, 1917, 12, 13.

⁴의명학교 5회 졸업생(1914년 입학)이었던 유영순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학교생활은 다음과 같았다. 아침 6시 기상, 실내청소, 세면, 아침예배, 학과 예습, 아침식사, 8시 등교, 조회, 12시 10분까지수업, 점심식사,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노동, 귀사 후 저녁식사, 저녁예배, 학과 복습, 9시 30분에 취침. 유영순, 회고담(懷古談) (서울: 시조사, 1984), 28.

교봉사와 서기직도 중요한 노동에 속하였다. 이런 노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은 하루에 평균 3원(2전 5리부터 5전까지) 정도의 수입을 얻어 빠듯하지만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농업 실습등을 통해 근대적인 실업교육을 실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학생들이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학비, 식비, 기숙사비 등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 노동장학생 제도를 실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노동교육 프로그램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는 돈이 없어도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매우선진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이유로 의명학교의 실업교육은 주변으로부터 상당한주목을 받았다.1 삼육대학교는 이런 교육 정신을 이어받아 매우 오랫동안 실업부를운영해 왔으며, 당시의 정신을 살려 현재까지도 노작교육을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성과 영성의 교육과 더불어 신체적 교육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실업교육이야말로 삼육교육이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교육이념 구현의 한 방식이되었다.

4) 제1회 졸업식(1913)

1907년 양성학교로 시작하여 1910년 1월 10일에 인가를 받아 시작한 의명학교의 첫 번째 졸업식은 1913년 3월 23일에 거행되었다. 이는 1909년 '고등학교령' 개정령에 본과 4년을 지방 실정에 따라 1년 단축할 수 있게 하고 예과를 폐지한 덕분에 3년 과정으로 교육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2이 첫 번째 졸업식에서는 첫 입학생 23명 중 6명(홍신후, 정한진, 오정순, 이영수, 류창섭, 김유신)이 영예의 졸업생명단에 포함되었는데, 그 중에 홍신후가 수석을 하였고, 김유신은 졸업생으로는 홍일점이었다. 이 여섯 명의 졸업생 중 4명이 한국 재림교회의 교역(敎役)의 길로 나오게되었는데, 이는 의명학교가 초기에는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회 졸업식 이후 매년 3월에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2회 졸업식은 1914년 3월 25일에 개최되었는데 14명(강리정, 김의목, 이근팔, 박지순, 김인호, 전홍석, 장병삼, 고두칠, 강봉호, 박윤순, 박겸서, 김승선, 오태은, 김례옥)이 졸업하였고, 이중 여학생은 3명(김승선, 오태은, 김례옥)이었다. 그 이듬해인 1915년 3월 25일에는 3회 졸업식

¹의명학교 실업부의 활동상과 고학의 낙원으로서의 명성은 1927년 조선일보 등에 실린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조선일보 1927. 7. 8; 오만규, "삼육대학교 및 삼육대학교 신학부 약사," 삼육신학 9 (1996): 15; 이종근, "히브리 교육과 삼육이념," 삼육교육 이념의 이해와 적용, 19.

²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1906년 '고등학교령'과 1908년 '고등학교령 시행규칙'에 이어 1909년 발표된 '고등학교령 개정령'에 따른 것이다. 한국교육100년사집필위원회, 165.

이 거행되었는데 7명(이성의, 정용엽, 이면식, 김상칠, 임성원, 김병모, 강태숙)이 졸업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1 1회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재림교회 선교사업 및 각종 사업을 위한 교역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처럼 의명학교를 통해서 국내에서 교육받은 본방인 교역자들이 배출됨에 따라서 한국 재림교회는 선교사업을 위시해 교육, 의료, 출판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벌일 수있게 되었다. 2 이러한 활동들은 결과적으로 어려운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

5) 교사(校舍) 신축(1913)

당시의 다른 일반 사립학교가 그렇듯이 의명학교 역시 지원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됨으로 보다 더 많은 교육시설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단 지도부는 1912년 6월 평안남도 강서군 기양(岐陽)에서 열린 제2회 미션 연례회의에서 의명학교 교사(校舍)를 신축하고 기숙사를 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총 14,000원으로 그 중 13,000원은 세계본부인 대총회에 지원금으로 청구하고 나머지 1,000원은 조선교회가 부담키로 하였는데, 대총회는 350불 이상의 재정을 약정하였고,3 실제로는 1913년 1기 열셋째 안식일학교 초과헌금 중 7,000불을 지원하여 건축을 시작하도록 도왔다.4 이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은 당시 순안지역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었는데, 특별히 새 예배당(chapel)은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로 교인들에게 자긍심을 주었다. 이에 대해 당시 조선합회 회장이었던 버터필드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순안의 이 모임에 대해 기쁨을 표시했다. 지난 여름에 완공된 새 채플(chapel) 헌당식이었다. 채플은 학교 건물에 있는 남학생 교실과 여학생 교실 사이에 있다. 이 채플은 조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예배당으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건물과 여 기숙사, 그리고 새 병원은 순안의외모를 크게 개선시켜 주었다. 이것들은 1913년 제1기 13째 안식일 연금으로지어진 것이다.5

1912년 신축을 결의한 예배당이 딸린 새로운 학교 건물은 1913년 4월에 기공하여 그해 10월 완공하였다.6 이 신축 건물에는 중앙에 강당 겸 예배당이 있었고 좌우로

¹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23.

²이영린은 의명학교의 졸업생 배출로 재림교회 선교사업이 "신국면으로 돌입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영린, 147.

³I. H. Evans, "The General Meeting for Korea," *Review and Herald*, October 3, 1912, 13; 세천사의 기별, 1913 2월호, 25; 이영린, 45.

⁴Russell Riley, "Doctor Russell's Story," 1, 2; 이영린, 179.

⁵C. L. Butterfield, "New Building in Soonan," Review and Herald, January 29, 1914, 14.

각각 여자부와 남자부가 있었다. 여자부는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 네 개가 있었으며, 남자부 쪽에는 가운데의 복도를 기준으로 남쪽에는 직원실, 교장실, 회계실이, 북쪽에는 남학생들을 위한 교실 셋이 있었다. 아울러 윗 층에도 큰 교실이 하나 있었다. 의명학교의 건물은 벽돌로 지어진 서양식 건물이었기 때문에 당시 순안에서는 매우 기념비적인 것이었다. 버터필드 목사가 보고한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순안의 외모를 크게 개선시켜 줄만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의명학교는 순안의 명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재림교회는 이 당시에 의명학교 이외에도 순안병원과 선교사들을 위한 사택도함께 건축하였다. 순안병원은 의명학교의 제2대 교장이었던 러슬 의사의 지휘 아래많은 환자들을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봉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학교건물의 한쪽 귀퉁이에서 진료를 보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병원 건물을 따로 짓기로결의하고 학교 건축과 더불어 병원건물도 지었다. 러슬 의사는 손수 벽돌 제조를 지휘해 1,000 장에 36불 정도하는 벽돌을 5불 정도의 자금으로 제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은 금액으로 5만 장의 벽돌을 찍는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었으며, 이로 인해의학교뿐만 아니라 순안병원과 선교사들이 거주할 사택 2동을 지었다.2

사실 이 시기는 재림교회 본부가 최초의 서울 정착지였던 월암동(대한매일신보발행인 영국인 베셀<E. T. Bethell, 褒談>의 집)으로부터 동대문 밖 떡전 거리(회기동현 위치)로 옮겨 선교의 기반을 든든하게 확립했던 때이기도 했다. 교회 지도부는 1912년 7월 10일에 당시 경성부 인창면 청량리에 살던 김재완으로부터 1,469평이약간 넘는 땅을 2,333원 3전에 사서 본부 건물과 예배당과 선교사 사택 등을 건축하여회기동 본부 시대를 열었다. 이 일련의 건축 공사는 1912년 연말 안으로 매듭지어졌고, 이듬해인 1913년 2월 1일에 헌당식을 거행하였다. 본부 건물은 출판소와 본부 사무실로 구성되었으며, 2층에는 20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마련하였다.이 외에 세동의 사택들이 건축되어 버터필드, 오버그(H. A. Oberg, 吳壁), 밀스(Franks Mills, 閔理守), 샤펜버그 등 4인의 가정이 거주하게 되었다.3이로써 서울의 본부 건물에서는 선교와 출판 사업을, 순안의 학교와 병원에서는 교육과 의료 사업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재림교회가 추구하던 근대 선교의 4대 사업이 서울과 순안을중심으로 한 이원체계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다.이런 이유로 해서 1913년 10월에 개최된 제3회 미션 총회(20~26일)는 한 곳에서 진행하지 않고 평안남도 지방회는 의명학교 강당에서, 중부 지방회는 서울 본부건물에서, 동부 지방회는 원산에서 각각 분

⁶의명학교 연혁(1937년도); 이영린, 147.

¹유영순, 28.

²Russell, 1, 2; 이영린, 179.

³C. L. Butterfield, "Dedication Service at Seoul," Review and Herald, April 17, 1913, 13.

산해서 진행되었다.¹ 이때 의명학교에서는 미션 총회와 더불어 학교 건축물들에 대한 헌당식을 거행하게 된다.

6) 의명학교의 위상 확립

병원과 의명학교의 새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순안에서의 재럼교회의 사업과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 재럼교회 최초의 본부지역이었던 순안에서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의 체계가 갖춰지게 됨에 따라 지역사회로부터 주목을 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전문 인력들이 배출되어 교회 사업 곳곳에서 핵심 일꾼들로 활동하게되었다. 의명학교는 이러한 교육의 목적, 즉 근대적 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중심으로한 삼육교육의 이상을 체계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보다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면서명실상부한 교육 기관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 시기에 학교의 발전 모습은 당시 세계재림교회 대총회장이었던 대니얼스(A. G. Daniells) 목사가 남긴 다음과 같은 보고에잘 나타나 있다.

순안학교는 하워드 리(Howard M. Lee)가 주관하고 있고, 스캇(H. M. Scott)과 한국인 교사 9명, 그리고 다른 일손들이 돕고 있는데, 현재 등록생수는 135명이고 출석생 수는 113명이다. …

학교의 필요 중의 하나는 농장의 일이 없을 때 학생들이 겨울 동안 일할 수 있는 작은 공장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학교는 매우 광범위하게 학생 스스로 자신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학교의 훈련이 그들에게 자기 존중의 정신을 길러주고 학교를 떠난 뒤에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공장이 곧 세워지면 우리 교사들이 조선대회 전역에서 복음 사업을 전진시킬 자신이 넘치고 용감한 일꾼들을 양성케 할수 있으리라 믿는다.2

이 시기에 의명학교 학생이었던 유영순 목사는 교장 하워드 리와 여자부의 스캇(여기숙사 사감 겸임)과 더불어 학생들을 가르쳤던 한국인 교사로 김병룡(재무, 성경), 김봉걸(역사), 이병호(수학, 체조), 하동협(한문, 작문, 기숙사 사감), 장한진(생리위생), 나가도리(永鳥眞雄 일본어 담당), 강리정(소학부 담당, 중학부 역사), 김승선(소학부담당) 선생 등을 언급하고 있다.³ 의명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보통학교에서는 기초적인 내용을 배웠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성경, 산수, 생물, 해부학, 화학, 물리, 부기, 상업, 세계사, 생리학, 미술, 음악, 기하학, 대수학, 한문, 일본어, 영어, 지학, 자

¹C. L. Butterfield, "New Buildings at Soonan," 14.

²A. G. Daniells, "The Korean Conference," *Review and Herald*, May 3, 1917, 12, 13. ³대니얼스의 보고에는 한국인 교사가 9명으로 나오는 데, 유영순 목사의 기록에는 일본인 교사를 포함해 9명으로 나온다. 유영순, 34-36.

연, 지리 등을 배웠다.1 이 과목들은 당시 일반 사립학교들에서 가르치는 중등과정과 일치하는 근대적인 교과과정이었다. 대니얼스가 리뷰 앤드 헤럴드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의명학교의 핵심 교육 목적이 재림교회의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졸업생들이 학교와 병원과 출판소 및 선교 일선의 교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근대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공부를 하게 됨으로써 전문적인 교회 사역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필요에 따라서 의명학교 내에 전문적인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신학교과정을 설립하게 되었다.

¹Howard Lee, "Our Korean Training School at Soonan," *Review and Herald*, April 11, 1912, 13;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19.

제4장 신학교육 실시 (1917)

의명학교의 발전은 학교교육 목적의 분화를 가져왔다. 원래 의명학교는 교회의 사역자양성을 위한 양성학교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삼육교육이념을 기반으로 한근대교육이 도입되고 시설들이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의명학교는 순안 지역에서 매우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순안 지역에 사는 많은 학생들이교육을 받기 위해 입학함으로써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자 의명학교는 재림교회사역자를 양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교육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한국 사회와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교육시스템과 아울러 의명학교의 본연의기능이었던 사역자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런과정 속에서 교육자들은 자연스럽게 의명학교 내에 별도의 신학교육 과정을 만들게되었다. 이렇게 해서 재림교회는 초등교육과정(소학교)과 중등교육과정(중학교)에 이어 고등교육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1. 한국 선교사업의 발전

의명학교와 순안병원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재 림교회의 선교사업 역시 발전하게 되었다. 특별히 한국사업의 발전은 재림교회 세계 본부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세계본부(대총회)의 지도자들이 교단의 지원사업과 그로 인한 발전 상황들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사람은 재림교회초기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프레스캇(W. W. Prescott) 목사였다. 배틀크릭 대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프레스캇 목사는 동양순회(東洋巡廻)의 여정 중에 1907년 1월 10일에 내한하여 지성적인 강의를 통해서 한국 재림교회 신학 이해에 많은 영향을주었다.1 그 후 1913년 2월 1일에는 역시 세계 순회 여정에 있던 샐리스베리(H. R. Salisbury) 교수가 내한하여 회기동에 자리한 본부 건물 헌당식 설교를 통해 한국의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다.2

세계 지도자들의 한국 방문은 대총회장 대니얼스 목사의 방한으로 이어졌다. 대니얼스는 1900년대 초기에 세계 재림교회가 안정적인 조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많은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었다. 그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¹W. W. Prescott, "A Visit to Korea," *Review and Herald*, April 25, 1907, 1. ²이영린, 45.

내에서의 재림기별의 전파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매우 주목할만한 것이었음을 말해준다. 대총회장 대니얼스 목사는 1915년 4월 6일부터 13일까지 의명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제5회 미션 총회에 참석하여 한국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를 하였다. 이기간 동안에 그에 의하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정문국, 이근억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순안의 의명학교에서 교육받고 1910년부터 국내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정문국 목사는 의명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했고,1 이근억 목사는 1906년부터 순안교회에서 사역하던 김승원 목사가 1910년 2월에 인쇄소 총무로 발령을 받자 그를 대신해서 순안교회 사역을 시작하였다.2

한국사업의 발전은 곧바로 아시아 선교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1915년 4월에 조선 미션 총회를 위해 의명학교를 방문했던 대니얼스 대총회장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일 간 중국 상해에 위치한 양성학교(Shanghai training school)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지회 총회에 참석하여 아시아 사업을 지도하였다. 아시아지회(Asia Division)란 호주, 중국, 조선, 일본, 필리핀, 말레이반도 등 호주와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교회조직으로 1913년에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대총회 총회에서 설립되어 1915년에 첫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3당시 기록에 따르면 동아시아 전체에 교인 수가 2,743명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교인 수가 700여 명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교세가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이런 일련의 발전과 더불어 한국의 재림교회는 1908년에 일본 미션으로부터 조선미션(Korea Mission)으로 분리 독립한 데 이어서 1917년에 조선 미션에서 조선합회(Korean Conference, 혹은 Chosen Conference)로 승격되었다. 5이 결정은 2월에 개최된 제6회 미션 총회(7-14일)에서 대니얼스 대총회장의 2차 내한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그리고 2개월 후인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된 제2회 아시아지회 총회에서는 다시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만주, 대만 등 4지역을 합하여 동아시아연합회(East Asian Union Conference)로 재조직하였다. 한국은 동아시

¹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23.

²C. L. Butterfield, "Training in New Recruits," Review and Herald, April 21, 1910, 13; 이영린, 43. 김승원이 순안의 사역자로 임명된 것은 1906년 11월 선돌교회에서 필드 목사의 지휘 하에 개최된 간부회의에서였다. 이때 이봉승은 선돌, 김두형은 순안 이북, 임기반은 강화석과 함께 평양, 강창오는 진남포, 이성일은 선돌 부근 등으로 배치되어 본방인 사역자 7명이 활동하게 되었다. C. L. Field, "Second Trip to Korea," Review and Herald, March 14, 1907, 17; 이영린, 39.

³A. G. Daniells, "The Asiatic Division Conference," Review and Herald, August 26, 1915, 5. 4대니얼스 목사가 1917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교인 수는 1916년에 860명인데 이는 1915년보다 154명이 증가한 것이라 한다. 이 자료에 근거해 1915년 한국의 침례교인 수는 706명인 것을 알 수 있다. 교회 수는 18개, 예배소 수는 32개였다. 이영린, 49.

⁵Review and Herald, March 22, 1917, 24; A. G. Daniells, "The Korean Conference," Review and Herald, May 3, 1917, 12, 13. 에번스는 조선합회(Chosen Conference)란 표현을 쓴다. Irwin H. Evans, "Meeting of the Chosen Union Mission," Review and Herald, August 7, 1919, 14.

아연합회에 소속된 조선대회가 되었으며, 이 연합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선교사업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 동아시아연합회는 1918년 10월에 선일만연합회(鮮日滿聯合會)로 변경되었다가 1919년에는 아예 조선, 일본, 만주가 각각의 합회로 독립되어 한국교회는 조선합회(Korean Union Mission)로 거듭 승격하게 된다.2 이처럼 짧은 시간에 조직의 수준이 계속해서 승격된 것은 한국에서 선교사업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발전의 중심에는 의명학교와 순안병원 등 근대적 기관들의 역할이 있었다.

2. 신학교 설치(1917)

교회의 선교사업과 교육사업이 발전해 갈 즈음, 의명학교의 정체성을 더욱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 의명학교 내에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의명학교 내에 신학교를 설치하게 된 배경에는 이미 언급한 학교의 기능 분화로인한 사역자양성학교 운영의 필요성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선적으로 주목할 만한 역사적 배경으로는 제1차 조선교육령과 관련된 관계 법규들이 제정된 것이다. 이미 설명한 대로 일제는 강점 이후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보통학교 위주의 단순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한국인들에 대한 식민지화 우민교육정책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서 보통학교규칙, 고등보통학교규칙,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 실업학교규칙, 사립학교규칙 등을 제정하여 공포했으며, 이후 계속해서 전문학교규칙(1915), 개정 사립학교규칙(1915) 등 교육 관련 법령 및 규칙 등을 제정하였다. 3 이에 따라 한국에서 교육과정은 보통학교(초등학교)와 고등 보통학교(중등과정)로 한정되었다. 하지만 4년 후인 1915년에는 전문학교 규칙을 만들어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전문학교 과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규정들은 사실 일제가 공립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아래 제정된 것들이었다. 전문학교규칙과 더불어 경성법학전문학교(1916), 경성의학전문학교(1916), 경성공업전문학교(1916),

¹C. L. Butterfield, "East Asian Union Conference," Review and Herald, April 4, 1918, 24.

²이때 아시아지회는 원동지회(Far Eastern Division)으로 개편됐다. 이영린, 51. Irwin H. Evans, "Meeting of the Chosen Union Mission," Review and Herald, August 7, 1919, 14. 여기에서 사용된 영여 명칭(Korean Union Mission)은 연합회를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이명칭을 "조선합회"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여기에서도 조선합회로 명명하고자 한다. 초기 재립교회 지도자들은 1950년 11월 4일에 이르러 평의원회를 통해서 "조선합회"(Korean Union Mission)를 "한국연합회"(Korean Union Mission)로 개칭할 것을 결의하였다. George Rue, "Days of Anxiety in Korea," Review and Herald, January 25, 1951, 16, 17; 이영린, 98.

수원농림전문학교(1918) 등이 관립으로 세워졌다. 물론 사립전문학교의 설립도 형식 상으로는 가능했다. 이로 인해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1917), 연희전문학교 (1917) 등이 세워졌다. 그러나 전문학교규칙과 더불어 1915년 3월에 개정된 사립 학교규칙을 통해 사립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까다롭게 하여 사립 전문학교의 설립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설립 요건에는 조선총독의 인가, 학교 설립 목적, 명 칭, 위치, 학칙 등의 변경 규제, 교원 임명 및 교체의 규제, 교과과정 감독 강화 등이 들어 있어 사립학교 설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2

이러한 제 규정에 의하여 대부분의 사립 고등교육기관들은 대부분 각종학교로 격하되었으며 새로운 전문학교 설립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의명학교에 신학교가 설치된 시점은 이런 어려운 시기였다. 더욱이 개정된 사립학교령(1915)에는 "향후 10년 후에는 기독교계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성경과목을 제외시키고, 예배의식을 금지하며, 5년 이내에 모든 교사가 일본어만을 배워 일본어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한다"는 내용까지 삽입되어 있어 기독교계 학교의 규제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 지를 보여준다. 3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명학교에 신학교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절실했다. 무엇보다도 조선 미션이 조선대회로 승격되고 동아시아연합회의조직과 더불어 그 본부가 서울에 설치되면서 자격을 갖춘 더 많은 교역자들이 요구되었다. 여기에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이런 실질적인 필요에 직면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1917년 7월 25일에 열린 대회 평의원회의에서 의명학교에 2년제 신학교를 설치할 것을 결의하고 11명의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하였다.4

이렇게 해서 1917년 9월 1일에 의명학교의 한 교실에서 신학교 과정이 시작되었다. 최초 11명의 입학을 허락했지만 실제로 등록한 학생은 5명이었고, 허가 외 정원 1명을 포함한 6명(김영우, 임기학, 정동필, 정붕상, 정만호, 조치환)이 신학교 제1기학생으로 입학하였다. 이들은 의명학교를 졸업하고 이미 교역에 종사한 경험을 가진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봉급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였다. 5 당시 신학교를 가르친 교수

¹연세의발전과 한국사회편찬위원회, 연세의 발전과 한국사회(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44. 2한국교육100년사 편찬위원회, 188.

^{3&}quot;개정 사립학교규칙"(총독부령 제24호), 조선총독부관보, 1915. 3. 24; 주재용, 157.

⁴Clinton W. Lee, "Ministerial Department, Chosen Union Training School, Foundation and First Class, An Historical Sketch," 1933 참조; 이영린, 153. 신학교는 신학전문교육을 위해서 의명학교 내에 설치된 각종학교이다. 이로 인해 재림교회는 소학교, 중학교 이외에 신학교를 갖추게 됨으로써 전 교육과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의명학교가 삼육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이유는 양성학교로부터 의명학교, 신학교에 이르기까지 사역자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재림교회가 순안에서 중학교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음은 당시 일제의 자료들에서도 나타난다. 吉川文太郎, 朝鮮の 宗教(京城, 1921), 204.

⁵이영린, 153;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28.

들로는 스미스(기독교사와 본교회사), 하워드 리(의명학교장, 편지서와 선지서), 러슬 (순안병원장, 성소 문제), 버터필드, 오버그 등과 한국인 김창세, 일본인 나가도리 등이 있었고, 버터필드 목사가 신학교 과장을 맡았다. 학생들이 배웠던 교과목은 신구약 총론, 편지서, 다니엘, 묵시록, 고등교리, 본교회사, 기독교회사, 전도법, 음악 및 일본 어 등이었다. 당시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조직신학(신학일반, 소요리문답, 구원론), 성경신학(모세오경, 유대사기, 마태복음), 역사신학(고대사), 실천신학(목회학), 일반교양(산수)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의명학교 내의 신학교는 단순하지만 기본적인 신학 과목 외에 다니엘, 묵시록 등 본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신학들을 가르치는 특별 과목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림교회만의 독특한 신학교육을 연구 운영했던 것을 알 수 있다.1 5년 과정으로 진행된 평양신학교에 비해의명학교 내의 신학교가 2년 과정으로 운영된 것은 의명학교 신학교의 경우 이미의 명학교에서 4년 혹은 3년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이었다. 의명학교 신학교는 이 과정만으로 사역자의 자질을 갖추는데 충분했다.

¹평양신학교는 장로교회가 세운 신학교로 5년제 과정으로, 1년에 3개월 수업, 9개월 현장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 집중식 교육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총신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총신대학교 100년사, 역사편(서울: 총신대학교, 2003), 234.

제5장 의명학교의 발전

 $(1918 \sim 1930)$

1915년에 반포된 개정 사립학교 규칙과 종교의 '포교규칙'(총독부령 제83호, 8월 반포) 등으로 일제하에서 기독교의 포교 및 기독교 교육은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와 의명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안정적인 교육기반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교세의 확장과 그에 따른 적극적인 교육정책과 교육에 대한 의지 때문이었다. 재림교회의 핵심 교육기관인 의명학교는 1919년 3.1 운동이후 급변하는 국내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발전을 지속하였다. 이런 발전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의명학교가 이미 지역사회에서 우량학교로 인정받을 만큼 확실한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제가 반포한 조선교육령의 기조는 비록 전략적인 것이긴 했지만 시설이 좋은 우량학교는 존속시키되 시설 기준이 맞지 않는 학교는 폐교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의명학교는 이런 점에서 우량한 학교로 인정받았던 것같다.1 이는 1913년에 새로운 학교 건물과 병원과 기숙사 등을 건축함으로써 학생수가 증가되었고 교원들과 교과과정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근대교육 기관으로서의위상이 높아진 것 때문이었다. 이런 위상의 변화와 더불어 의명학교는 본격적인 발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 발전을 위한 노력들(1918)

의명학교 안에 신학교가 설치됨으로써 의명학교는 고등교육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원래는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중등과정) 만으로 운영되던 학교가 이제는 2년제 신학교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고등교육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2물론 당시 전문학교규칙과 개정 사립학교규칙에 의거해서 볼 때 정식 인가된 전문학교는 아니지만 의명학교에 설치된 신학교는 교회의 필요에 부응하고 대학과정의 의미를가진 전문가 양성과정임에 틀림없었다.

교수로 내정된 인물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주재하고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순안에 상주하지 못하고 강의가 있을 때마다 2주간씩 순안에 와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신학교의 본격적인 운영과 더불어 행정자들은 의명학교의

¹윤선자,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의 대응," 한국사학논총(서울: 국민대학교대학원, 1997), 4-42참조.

²이영린 교수는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영린, 153.

발전을 위해서 1918년 5월 28일 조선대회 총회에서 노동과 학비 규정을 포함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게 되었다.1

- 1) 사업의 표준을 높일 것.
- 2) 교장이 교원들을 훈련하되 수양시킬 시간을 얻도록 배정할 것
- 3) 노동생에 관한 규정 등 의명학교 입학자격: 만 12세 이상 보통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같은 정도의 학력이 있는 자.

자비생과 노동생: 노동생은 17세 이상자에게 15명만 노동생으로 선발

연한: 4개년인데 노동생은 5년 정도

학비: ① 입학금 - 1원

- ② 수업료 1원(노동생 80전)
- ③ 월식비 6원~9원 정도
- ④ 1년간 서적비 4, 5원 정도
- ⑤ 월 잡비 1원 50전 정도.

결의의 내용을 보면 학교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표준을 높일 것을 강조하였는데 특별히 교원들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런 결정에서 좀 더 나은 교육을 통해 학교의 위상을 높이려는 행정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별히 이 결의에서는 노동생에 관한 규정도 들어 있다. 이는 당시 의명학교가 노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자 했던 실업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당시 학생들의 노동 부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언급했거니와 학생들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노동을 통해 1시간에 2전 5리에서부터 5전까지 급료를 받았다. 당시에 노동을 통해 학교를 졸업했던 유영순 목사의 회고록에 따르면 한 학생이 한 달에 3원에서 6원 정도의 수입을 얻어 학비와 그 외의 잡비 등을 충당했음을 알 수 있다. 2 의명학교는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의 자질과 학생들의 입학 조건 및 학비 문제들과 같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를 얻었다.

2. 3.1운동과 재림교회(1919)

의명학교에 설치된 신학교의 첫 번째 졸업식은 1919년 3월에 거행되었다. 교회 일

¹이 내용은 1918년 5월 28일에 개최된 조선대회 총회에서 결의되었다. 김재신, 삼육대학교 90년 사, 128, 129.

²유영순, 29.

선에서 활동할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2년제로 설치된 신학교는 첫 해 6명이 입학하였으나 결국 2명(정붕산, 조치환) 만이 최종 졸업을 하게 되었다. 1 신학교의 교육 연한은 2년이었기 때문에 1회 졸업식은 1919년 7월로 예정(1917년 9월 시작되었으므로)되어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3.1 운동이 발생하게 되어 일제의 탄압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렵게 되자 수업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졸업식을 거행하고 사역에나가도록 하였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 1회 졸업생들이 1919년 3월에 졸업을 해서 4월에 사역 현장에 나가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3.1운동과 재림교회의 역사적 의미를 되 집어보지 않을 수 없다. 3.1독립만세운동은 일제강점의 부당성과 대한민국의 독립의지를 온 세계에 천명한 중요한 역사적 의거였다. 전국적으로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드러낸 3.1운동은 1918년 1월에 미국의 월슨(Woodrow Willson)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의 전후처리를 위해 발표한 14개 원칙들 가운데 하나였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서 고무되었다. 월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되자 미국에 있던 재미한인대표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한 파리강화회의 대표 파견을 결의하였으나 미국정부의 반대로실패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당시 동경 유학 중에 있던 학생들은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의 휴전 조약이 발표되자 이를 계기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국 독립을 주장하면서,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 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조선청년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날 동경 유학생 거의 전원에 해당되는 6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2.8독립선언서'는 고국에서의 독립운동을 발화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결국 이런 일련의 계기와 더불어 한국에서는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은 태화관에서,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은 탑골공원에서 각각 독립선언문을 낭독한후 조선독립만세를 외침으로써 3.1독립운동이 시작되었다.2

3.1운동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운동의 핵심 세력들 중에 학생층이 대다수 였다는 것이다. 당시 근대 고등교육을 이끌었던 연희전문학교,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이화학당 등의 남녀학생들과 평양의 숭실, 숭덕, 숭의, 숭현 등의 여러 기독교계 학교 학생들이 시위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의 열망과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 시기에 만세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지역 중 한 곳인 평양 근처에 있던 의명학교와 재림교회가 3.1운동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그

¹이영린 교수는 이 때 졸업한 학생 수는 김영우 등 6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김재신 목사가 삼육대학교90년사를 편찬하면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당시 졸업생이 2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영린, 153; 한국연합회 교육부, 삼육, 제4권, 1940;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29.

²이보연, "3·1운동에 있어서의 민족자결주의의 도입과 이해," 3·1운동 50주년기념논집(서울: 동아일보사, 1969), 175.

러나 몇몇 자료에 근거해서 재림교회가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장이었던 요시카와 후미타로(吉川文太郎)는 3.1운동으로 인해 감옥에서 취조를 받은 사람들을 종교별로 분류해놓았는데, 그 자료에는 재림교회(第七日耶蘇再臨敎)인 5명도 포함되어 있다.1 다시말해서 3.1운동으로 인해서 재림교인 5명이 수감된 것이다.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독립운동에 참여해서 투옥되었는지 자세한 기록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록은 재림교회가 3.1운동에 나름의 방식으로 참여했음을 보여 준다.

재림교회의 역사적 기록에 나타난 것을 참고로 해 볼 때 의명학교 옆에 있던 순안 병원의 러슬 의사와 병원 직원들이 이 5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재신 목사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순안병원장이었던 러슬이 3.1운동 참가자 가운데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부상당한 한 젊은이를 치료해 준 것이 발각되어 일본 헌병대에 검거되었고, 그로 인해 3개월간 고생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2 러슬 원장은 '제네바'에 본부가 있는 적십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상당한 환자를 치료해 주었고, 당시 11명의 병원 직원들 또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함으로써 민족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이 일로 러슬 원장은 평양 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에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러슬은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이었던 하딩(W. G. Harding)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알려져 재판이 기각되고 그 위기로부터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다. 러슬 원장이 고동법원에까지 기소된 것은 그가 미국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의 행위가 3.1운동과 관련해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재림교회와 3.1운동과의 관계, 순안병원 및 의명학교와 그 운동과의 관계 등이 역사적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3. 조선합회와 교육사업의 발전

1919년에 이르러 조선합회는 3.1운동의 와중에서도 중대한 발전을 경험하게 된다. 1917년 조선미션에서 조선대회로 승격한 후, 관할조직은 1918년에 일본과 조선과 만주를 합쳐 조직된 선일만연합회(1917년에는 일본, 조선, 만주, 대만을 합쳐 동아시아연합회로 조직되었었음)의 일부가 되었고, 다시 1919년 3월에 상해에서 개최된 아시아지회 평의원회에서 일본, 만주와 더불어 각각 독립된 합회로 격상하게 되었다. 이로써 조선합회(Chosen Union Mission)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 조선합회는 원동지회(Far Eastern Division, 1919년의 지회 회의에서 아시아지회가 원동지회로 명칭이

¹吉川文太郎, 389.

²유영순, 65;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30.

바뀜)에 소속된 독립된 합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에 조선합회 지도자들은 그 해 5월 중순(9~17일) 순안의 의명학교에서 제1회 합회 총회를 갖고 한국 선교사업에 대한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조선합회 내 전국의 지역을 1합회 2미션 등 3개로 나누었다.1 의명학교가 위치한 지역인 서북지방은 서선대회(西鮮大會, North Chosen Conference)2로 하여 본부를 순안에 두고, 중부와 동북부 지방은 중선미션(中鮮美順, Central and Northeastern Mission Field)으로 서울에 본부를 두었으며, 영남과 호남지방은 남선 미션(南鮮美順, Southern Mission Field)으로 하여 본부를 경산에 각각 두었다.3 이지역들 중에 순안이 있는 서북지방은 미션(mission)보다 상위 조직인 대회 (conference)가 되었는데, 이는 그 만큼 이 지역의 교세가 발전하였기 때문이었다. 서북지방의 교세가 가장 컸던 것은 당시 한국 재림교회의 중심이 순안이었기 때문이었다. 특별히 의명학교와 병원 등의 기관들이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 순안의 발전 나아가 서북지방의 발전의 근원이 되었다.

제1회 조선합회 총회가 열리던 1919년 당시의 교세를 살펴보면 정식으로 조직된 24개 교회에 1,021명의 교인 수가 있었고, 안식일학교는 78개소에 1,681명의 학생이 있었다. 조선합회를 위해 봉사한 사역자의 총 수는 131명이었는데 이 중에 안수목사가 10명이었다. 교회 학교는 13개교에 349명의 학생들이 있었다.4 당시의 종교 연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시카와 후미타로(吉川文太郎)의 "조선의 종교"(朝鮮の 宗敎)에 나타난 재림교회의 현황(1920년 현재)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요시카와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재림교회는 순안병원, 순안중학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생은 80명이고, 신도 수는 1,039명, 교회 수는 47개소, 안식일학교 학생수는 1,850명에 이른다. 재림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는 9명이며, 목사는 48명, 전도사는 30여명으로 집계 된다. 특별히 인쇄소를 운영하는 데 십여 명의 직원들이 인쇄사업을 감당하고 있으며, 기관잡지인 시조(時兆)를 매월 1천부씩 발행하고 있다.5 한국의 재림교인 수가 1천명을 넘어선 것은 당시 일본의 재림교인 수가 4백명이 안 되고, 만주의 교인 수가 100명이 채 안 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매우 고

¹원래는 1910년부터 4개의 전도구역(동해안지방, 남한지방, 중한지방, 서한지방)으로 나누어 활동했었다. 이영린, 43. 이 4개의 전도구역을 세 개로 합한 후 조선합회 조직의 세부조직으로 1개 대회 와 2개 미션으로 나누었다. Irwin H. Evans, "Meeting of the Chosen Union Mission," Review and Herald, August 7, 1919, 14.

²서선대회의 영어명칭은 서선합회였지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이 용어를 서선대회로 명명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역사성을 고려하여 서선대회로 표기하고자 한다.

³이영린, 52; Evans, 14.

⁴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30, 131.

⁵吉川文太郎, 204, 205.

무적인 숫자이다.

이 통계 수치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교육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재림교회가 운영하고 있던 기관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역시 병원과 학교, 출판소였다. 그중에서도 학교는 의명학교와 의명학교 내에 병설되어 있던 신학교가 있었다. 이 두학교는 중등학교 이상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학교까지 계산한다면 1919년 당시 재림교회는 모두 13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재림교회는 1910년 경술국치가 단행되기 전까지 이미 12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강점과 더불어 의명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었다.

일제가 강점 이후 식민지 교육을 위해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그와 더불어 사립학교령을 통해 사립학교들을 규제하는 정책을 취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다. 이로인해 일본은 3.1운동 발발 이후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기 전까지 1차 조선교육령의 시행시기에 서서히 사립학교들의 폐교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1910년 1,973개교(종교계 746개교)에 이르렀던 사립학교들이 1919년에 이르러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742개교(298개교) 만이 남게 되었다.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립학교 수의감소 추세는 제1차 조선교육령의 시행시기 동안 계속되었다.1

| 학교별 연도 | 일 반 | 종교계 | 계 |
|-----------|-------|-----|-------|
| 1910 | 1,227 | 746 | 1,973 |
| 1911 | 1,039 | 632 | 1,671 |
| 1912 | 817 | 545 | 1,362 |
| 1913 | 796 | 487 | 1,283 |
| 1914 | 769 | 473 | 1,242 |
| 1915 | 704 | 450 | 1,154 |
| 1916 | 624 | 421 | 1,045 |
| 1917 | 518 | 350 | 868 |
| 1918 | 461 | 317 | 778 |
| 1919 | 444 | 298 | 742 |
| 1920 | 410 | 279 | 689 |

[표 3] 사립학교 통계(1910-1920)

이에 비해 재림교회의 교육사업은 일제 강점 이후 다시 회복하여 1919년에 이르러서는 12개의 보통학교(소학교)와 1개의 고등보통학교(중학교), 그리고 의명학교 내에한 개의 신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표 4] 1919년 초등교육기관 운영 현황

| 대회별 | 학교명 | 소재지 | 교 사 | 학생수 | 경 비 |
|-----|-----|-----|-----|-----|-----|

¹한국교육100년사편찬위원회, 187.

| | 의명학교 | 순안 | 정동성,김은규 | 40 | 142,50. |
|------|-------|---------|---------|-----|-----------|
| | 희명학교 | 강서군 대마리 | 정동심,박겸서 | 26 | 121,01. |
| | 진명학교 | 강서군 운북리 | 이근팔,이격원 | 19 | 183,39. |
| 서선대회 | 용흥사숙 | 용강군 구룡리 | 강태숙 | 72 | 182,50. |
| | 정수리사숙 | 황주군 정수리 | 김병모 | 12 | 8.50. |
| | 선돌사숙 | 용강군 입석리 | 이경일 | 18 | 113,75. |
| | 함명사숙 | 강서군 홍범리 | 이항식 | 21 | 37,00. |
| 중선미션 | 동명사숙 | 서울 | 구연칠 | 30 | 80,70. |
| | 경산사숙 | 경산 | 이광섭 | 22 | 75,00. |
| 남선미션 | 남명사숙 | 남평군 풍림리 | 정관신 | 15 | 64,20. |
| 급선박선 | 해명사숙 | 제주도 사계리 | 임성원 | 9 | 94,00. |
| | 신양사숙 | 안동군 신양리 | 박기풍 | 3 | 60,00. |
| 계 | 12 | | 15 | 286 | 1,162,55. |

재림교회가 의명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에 보통학교들을 다시 세운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1910년 조선미션 평의원회의의 교육관련 결의사항 때문이었다. 이 결의에서 "교회들을 권장하여 소학교를 설립케"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교회지도자들은 전국적으로 소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특별히 교단 본부에서도 교육 사업의 발전을 위해 소학교를 경영하기로 결의하고 1911년 정부의 인가를 받아 의명소학교(순안)와 진명소학교(강서군 운북리)를 세웠다.1 그 후 나머지 학교들이 설립되어 다시 12개의 소학교를 회복하게 되었다.

3.1운동 이후 일본의 사이토 마코토(齊藤實) 총독의 '문화정치' 표방과 더불어 발효된 제2차 조선교육령은 형식상으로나마 학교 운영을 수월하게 해 주었다. 이에 재림교회의 교육 사업도 발전하게 되었는데 1919년에 286명이던 소학교 학생 수가 1921년에는 약 6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² 이 후 지속적인 발전으로 소학교의 경우학교와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어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37년에 이르러서는 23개교에 2,009명의 학생이 교육받게 되었다. 그러나 중일전쟁의 발발과 그로 인한 황민화 정책의 심화 등으로 인해 학교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자 재림교회의 교육사업은 다시 퇴보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해방 후 본격적으로 교육사업이 재건되기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 동안 소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의 발전 상황을 연도별로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표 5] 1920년 이후 초등교육 통계

| 연도 학교수 학생수 교사수 비고 |
|-------------------|
|-------------------|

¹H. M. Lee, "Educational Work of Seventh-day Adventists in Korea" 참조; 이영린, 139.

²C. L. Butterfield, "Greetings From the Chosen Mission," Review and Herald, January 19, 1922, 11; 弓削幸太郎, 朝鮮の 教育, 東京, 自由討究社, 1923, 184-197 참조.

³이영린, 139-141 참조.

| 1919 | 12 | 286 | 15 | |
|------|----|-------|----|--|
| 1921 | | 600 | | |
| 1925 | 31 | 1,081 | 50 | |
| 1927 | 31 | | | |
| 1935 | 23 | 1,484 | 46 | |
| 1937 | 23 | 2,009 | 45 | |

[표 6] 1935년 초등교육 통계(3월말 현재)¹

| 대회별 | 학교명 | 소재지 | 학생수 | 교사 | 비고 |
|-------|-------|---------|-------|----|----|
| | 의명학교 | 순안 | 133 | 4 | |
| | 신명학원 | 용강군 구룡리 | 98 | 3 | |
| | 게명강습소 | 사리원 | 77 | 3 | |
| | 순명학원 | 평양 | 43 | 2 | |
| | 홍명학교 | 황주군 철도리 | 27 | 1 | |
| | 희명학교 | 강서군 대마리 | 46 | 1 | |
| | 함명학원 | 강서군 홍범리 | 83 | 2 | |
| 서 선 | 덕명학원 | 신의주 | 98 | 2 | |
| , - | 서명학원 | 용강군 석성리 | 68 | 2 | |
| | 화명학원 | 중화군 이안리 | 24 | 1 | |
| | 의성학원 | 강서군 송호리 | 43 | 1 | |
| | 육영학원 | 안주 | 45 | 2 | |
| | 덕명학원 | 황주 | 28 | 1 | |
| | 남명학원 | 대동군 남리 | 44 | 2 | |
| | 진명학원 | 강서군 운북리 | 56 | 2 | |
| | 동명학원 | 서울 | 143 | 4 | |
| 중 선 | 광명학원 | 황주군 광지원 | 32 | 1 | |
| | 영명학원 | 보령군 정전리 | 56 | 1 | |
| н и | 원명학원 | 원산 | 71 | 2 | |
| 북 선 | 임명학원 | 리원 | 42 | 2 | |
| 63 13 | 경명학교 | 경산 | 114 | 3 | |
| 영 남 | 조일학원 | 통영 | 63 | 2 | |
| 호 남 | 호명학원 | 정읍 | 59 | 2 | |
| 계 | 23 | | 1,493 | 46 | |

위의 표에서 살펴보듯이 재림교회의 교육사업은 보통학교(소학교)의 운영에 집중되어 있었다. 중등교육기관인 고등보통학교(중학교)는 순안의 의명학교가 있었는데 이때의 학생 수가 100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에서 중심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교등교육 기관인 신학교까지 운영함으로서 발전을 도모하였다.

¹교회지남, 1935년 6월호, 31.

4. 의명학교의 변화와 발전(1920~1928).

사이토 마코토 총독의 재임과 함께 시작된 일본의 문화정치와 제2차 조선교육령 (1920)의 발표는 의명학교의 변화와 발전에 중요한 행정적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민간신문의 창간을 허용하고, 2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대학교육을 인정하는 등 외관상으로는 자치권을 확대하는 등의 행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본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이었다. 2차 조선교육령은 일본어 교육과 일본 역사와 지리 등을 강화하는 대신 조선의 언어와 역사교육을 제한하고 일본인 교사 수를 늘리는 등의 일본 동화정책을 강화한 칙령이었다. 조선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일제의 의도를 간파하면서도 그 상황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민립대학 설립 등을 통해 나름대로의 민족교육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의명학교 역시 이러한 시기에 나름대로 교육 확장의 계기를 삼아 학교 운영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였다.

1) 교장의 교체(1920)

3.1운동이 발생한 이듬해인 1920년에 의명학교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하워드리 교장이 사임하고 조선합회장으로 시무하면서 신학교의 책임을 맡았던 버터필드 목사가 의명학교 교장을 겸임하게 된다. 10년간 초기 의명학교의 교장으로 학교 발전에기여한 하워드 리 목사는 1919년 제1회 조선합회 총회에서 김예준 목사와 더불어 목사 안수를 받은 후, 2 이듬해인 1920년 4월 5일부로 교장직을 사임하였다. 3 공석이된 의명학교장엔 조선합회장이자 중선미션장과 신학교 책임자 등을 역임하고 있던 버터필드 목사가 대신해서 교장직을 수행함으로써 제4대 교장이 되었다. 하워드 리 목사는 버터필드 목사가 겸임하고 있던 중선미션장을 대신해서 역임하게 된다. 4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이듬해인 1921년 여름에 하워드 리 목사는 미국으로 돌연 귀국하였다. 이로 인해서 하워드 리 목사가 10여년 이상 맡았던 교육부 역시 버터필드 목사가 맡게 되었다. 5

그러나 버터필드 목사마저 1922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제40회 대총회에서 미국에 있는 한 합회의 합회장으로 피선되어 전근됨으로써 그가 맡고 있었던 여러

¹한국교육100년사편찬위원회, 218, 219.

²Irwin H. Evans, "Meeting of the Chosen Union Mission," *Review and Herald*, August 7, 1919, 14.

³의명학교 연혁(1937년) 참조.

⁴이영린, 52, 147.

⁵C. L. Butterfield, "Progress in Chosen," Review and Herald, July 14, 1921, 9.

직분들에 대한 인적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곧바로 지회는 공석이 된 조선합회장에 서선대회장이었던 오버그 목사를 선출하여 한국 사업을 이끌도록 하였다. 당시 회의에서 합회장이 된 오버그 목사는 이듬해인 1923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의명학교 운동장에서 장막집회 및 제3회 합회총회를 개최하고 교육부장에 리플(J. E. Riffel, 呂培悅) 목사를 선출하였다.1

제3회 총회에서 교육부장에 선출된 리플 목사는 1920년 8월 16일에 선교사로서한국에 부인과 더불어 내한한 인물이었다.² 클린턴 신학교(Clinton Theological Seminary) 출신의 리플 목사는 내한 후 수일 간 서울에 머물다가 9월에 의명학교의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³ 이로써 하워드 리 목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교장을 맡았던 버터필드(1920년 4월~9월) 목사에 이어 제5대 교장에 취임하게되었다. 이후 리플 교장은 1923년 조선합회 총회에서 재림교회 교육부 책임까지 맡게 되었다.

2) 사범과 설치 및 발전 전략 추진

새 교장에 취임한 리플 목사는 부지런히 조선말을 공부하면서 학교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리플 교장의 취임과 더불어 의명학교는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안에 사범과를 두기로 결의하고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1920년에 설립된 사범과는 1917년에 설립된 신학교에 이어 사회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이었다. 특별히 "전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신학교에서 2년간 수업하"게 한 것처럼, "의명학교 교사나 또는 다른소학교의 교사가 되려 하는 자"를 위해서 2년 과정의 사범과를 또 다시 설립하게 된것이다. 사범과를 맞게 된 교사로는 스미스 목사, 스미스 목사 부인, 리플 교장, 러슬의사, 히가시(東文吾, 일본어교사) 선생 등이었다. 하지만 그 동안 교사로 활동하던 하동협 선생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었다. 그래서 그 대신 서울에서 활동하던 구연칠 선생이 교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학교 측에서는 본교를 졸업한 이근팔, 이경일, 박기풍 등 세 사람을 사범과에 입학하기로 결의하고 교사 양성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후 1922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회기리에서 개최된 합회 사무위원회에서는소학교와 더불어 이 사범학교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65평의 건물 건축을 위해 8천

¹F. C. Gilbert, "The Chosen Union Biennial Meeting," *Review and Herald*, Septempber 20, 1923, 18; 교회지남, 1923년 7월호, 7-12.

²Review and Herald, April 29, 1920, 18; Ibid., July 29, 1920, 32; Ibid., January 6, 1921.

³교회지남(教會指南), 1920년 8월호, 20. 의명학교 연혁(1937년도)에는 리플이 교장에 취임한 해가 대정 11년(1922) 3월 16일로 되어 있다.

⁴교회지남, 1920년 9월호, 15.

원, 도서 구입비로 2천원, 사범과 설비금으로 2천원 등을 청구하기로 결의하였다.1 이러한 결의 내용들은 의명학교 지도부가 사범학교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 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후에 사범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알 수 없 다.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과 더불어 학교가 발전하게 되면서 자연히 학생 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교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의명학교는 1920년 10월 2층 교사(校舍)를 증축하고 학교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만들기에 이르렀다. 2 우선 더 전문적인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유급교원의 신학교 입학 시 급료를 지불하기로 한 결정을 내렸다. 1921년 1월에 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유급 교원이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수업하는 동안 매월 25원씩, 휴가 중에는매월 17원 50전의 급료를 지불하기로 결의"하였다. 3 이로 인해 의명학교를 졸업하고유급 교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도 신학을 공부하여 사역자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더넓게 열렸다. 이때 매월 25원이라는 금액은 당시 제1기 졸업생의 초봉이 22원이었던 것에 미루어 볼 때 매우 특별한 대우였다. 이 신학생들의 장학금제도와 더불어 의명학교 이사회에서는 같은 해 6월 13일에 의명학교 내에 있던 남학교와 여학교를 통합하여 남녀공학제로 운영하기로 결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남녀공학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4 학교의 발전을 위해 이렇게 제도들을 정비하였던 것이었다. 특별히 학교 운영자들은 학생 수를 200명 이상으로 증가시키기로 결정하는 등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유영하였다.

이 같은 의명학교의 발전은 급기야 지도자들로 하여금 보통과(의명소학교)를 1924년 4월 1일부로 고등보통학교와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결의하게 만들었다. 이 당시의 재학생의 규모는 신학교 14명, 고등과 191명(남자 175명, 여자 16명), 부인과 11명, 보통과 94명(남자 73명, 여자 21명) 등 총 310명에 이른다. 1924년 7월 25일에 리플 교장이 사임을 하고 전년도 12월에 다시 내한한 하워드 리가 교장에 재취임(제6대)하면서 학교는 또 다시 일신을 꾀하였다. 특별히 강당을 2층으로 증축하고 아랫층을 교실로 사용함으로써 학교의 규모는 더 커지게 되었다.

1925년 1월호 교회지남에는 의명학교의 근황이 소개되고 있다. 그 내용은 학생 총수가 232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등과에 118명(여학생 15명 포함), 보통과에 96

¹교회지남, 1922년 2월호, 24.

²이영린, 147;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32. 의명학교 연혁(1938)에는 2층 교사 중축이 대정 11년(1922) 10월 5일로 기록되어 있다.

³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33.

⁴상게서.

⁵상게서, 134.

명, 신학교에 3명, 부인과에 6명의 학생이 있었다. 특별히 고등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에 44명, 2학년에 32명, 3학년에 33명, 4학년에 9명이었다. 이 기록에서는 결원 중에 있던 일어 교사로 일본 조도선대학 고등사범부 영어과 출신의 목촌성삼(木村省三) 선생이, 목공부에 리플 목사가 각각 전담하도록 피선되었음도 알려주고 있다.1

3) 신학교 운영 상황

1917년에 설치되어 2년 후인 1919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의명학교 내의 신학교는 1920년 4월에 2기생을 받아 2년 후인 1922년 2월 25일에 정동심 1명을 졸업시켰다. 졸업식이 있기 전인 2월 5일 합회 평의원회에서는 그 해 3월 2일부터 신학교 운영을 1년간 정지하고 대신 스미스 목사로 하여금 통신으로써 사업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2 하지만 이 결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1년간 쉬었던 신학교를 1923년 4월에 다시 열어 제3기생을 모집하였다. 이때 신학부의 교사로는 스미스 목사와 김규혁 목사가 결의되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시작된 과정으로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까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의 발전이 그리 용이하지는 않았다. 특별히 이영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신학교의 수준이나 학생들의 자격 또는 학제 정도가지금의 중학교 3년 정도밖에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3

이에 교회 지도부는 1923년 6월에 순안에서 열린 제3회 합회총회 이후에 구성된 평의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신학교 사업을 재정비하기로 결의하고, 하워드리 목사를 다시 신학교의 책임자로 부르기로 하였다. 의명학교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남기고 2년 전 미국으로 돌아갔던 하워드 리 목사는 이 초청에 기꺼이 응해 그해 12월 다시 순안으로 돌아와 신학교 재건 및 의명학교 발전을 위해 또 다시 헌신하였다. 4하워드 리 목사의 귀국과 더불어 합회 평의원회에서는 1924년 2월 11일에 회의를 통해 신학교 제4기생을 뽑기로 결의하면서 특별한 기준을 정했다. 우선 입학 자격은 중학교과정을 졸업한 학생이나 혹은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자 중 자격에 부합하는 5명만을 입학시키고, 규정에 의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신학교육을 재개하였다. 5 이 결정으로 신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다.

¹교회지남, 1925년 1월호, 31.

²교회지남, 1922년 2월호, 31.

³이영린, 153.

⁴Review and Herald, January 24, 1924, 4.

⁵C. W. Lee, "Ministerial Department, Chosen Union Training School, The Fourth Class," 이영 린, 153.

신학교육의 재개로 다시 사역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1925년 3월에 신학교 제3회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이때 양총일, 김윤성 두 사람이졸업을 하였는데, 양총일은 제주도 출신으로 한반도의 최남단에서도 목회자가 배출되는 역사를 만들었다. 그 이듬해인 1926년 3월에 개최된 4회 졸업식에서는 5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고, 이들은 모두 사역자로 배치되어 일선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박기풍은 서선대회 안교부 서기, 고치규는 서선대회 전도사, 이상선은 중선미션 전도사, 박주국은 남선미션 전도사, 정관신은 북선선교지 전도사로 각각 발령을 받아각자의 임지에서 활동하게 된 것이었다. 1920년대 들어서 중학과정인 의명학교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신학교의 운영은 당시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게 휴교와 개교가 반복되었지만 신학교육의 맥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 학생들도 꾸준히 신학과정에 등록을 하여 1924년에는 14명, 1925년에는 13명의 신학교 학생들이 사역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수학하였다.

한편 이후의 신학교 운영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클런턴 리(Clinton W. Lee, 李時和) 목사가 1927년 4월부터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으로 돌아가게 됨에 따라 1927년 1월 24일에 열린 합회 평의원회에서는 그가 다시 귀국하는 1928년 9월까지 신학교를 휴교하기로 결의하였다. 2 클린턴 리 목사는 미시간 주 배틀크릭에서 성장하여 2년제 초급신학을 마친 후 1920년 8월에 한국 선교사로 입국하였다. 그는 한국에 도착한 이듬해인 1921년에 서울 본부예배당에서 개최된 합회 총회에서 남선미션의 책임자로 임명을 받아 선교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였다. 이렇게 6년간 미션장으로활동하던 클린턴 리 목사는 1927년에 첫 번째 안식년을 맞이하여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남은 신학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임마누엘 대학에 편입하였다. 이렇게 임마누엘 신학교에서 나머지 2년 과정을 1년 반 만에 마치고 졸업한 클린턴 리 목사는 1928년 9월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합회 평의원회에서는 1928년 4월에 클린턴 리 목사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시점을 기해 신학교를 다시 재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때 신학교의 주임교수로 클린턴 리 목사를 선정하였으며, 입학생들은 모두 9명으로 결의하였다. 특이한 것은 신학교가 시작되기 전까지 입학이 허락된 9명의 예비신학생들은 그 달로부터 5개월간 권서(勸書) 사업에 참여할 것을 의무화하는 결의도 있었다. 문서전도 훈련이 신학생들에게 있어서 매우 요긴한 훈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그해 9월 다시 한국에 입국한 클린턴 리 목사는 10월 10일에 정식으로 다시 재개한신학교의 주임교수로 임명되어 순안에서 본격적인 신학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¹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33.

²교회지남, 1927년 2월호, 31.

클린턴 리 목사를 중심으로 한 신학교육의 재개는 삼육대학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그는 정식으로 신학교육을 받고 훌륭한 교수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향후 신학교육의 발전에 큰 공을 세우게 되는 인물이었다. 클린턴 리 목사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사용할 교과서를 만들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는 미국 신학대학에서 사용하던 교과서들을 번역해서 신학교재로 사용할 만큼 교육에 열정적인 인물이었다.1 후에 그는 신학교를 순안에서 서울로 옮기는 역할을 맡고 조선합회 사역자양성소의 초대 소장의 직분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삼육대학교의 역사에서 클린턴 리 목사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 해에 재개된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교비생 9명-강진하, 이린찬, 하정환(이상 서선), 김펄억, 박원실, 김봉덕(이상 중선), 김명길, 장재복, 박부실(이상 남선)-외에도 오영섭과 전인진 등 2명의 자비생이 있었다. 이들은 클린턴 리와 리플의 지도 아래 2년간의 신학 교육을 받았다. 당시신학교의 교과과정은 매 학년별 10여 과목을 주당 5시간씩 총 30시간씩 이수해야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

| [표 7] |] 신학교 | 교과과정 |
|-------|-------|------|
| | | |

| 제1학년 | 주당시간 | 제2학년 | 주당시간 |
|----------------|------|-----------|------|
| 신약총론, 편지서 | 5 | 구약총론, 선지서 | 5 |
| 고등교리 | 5 | 다니엘, 묵시록 | 5 |
| 영어 | 5 | 영어 | 5 |
| 복음사역의 법 | 5 | 기독교의 확증 | 5 |
| 본교회역사, 정치, 부기학 | 5 | 기독교의 역사 | 5 |
| 찬미 | 2 | 찬미 | 2 |
| 위생, 생리 | 3 | 위생, 생리 | 3 |
| 11과목 | 30시간 | 10과목 | 30시간 |

신학교의 수업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씩 진행되었고 학기말에 정기시험을 통해 합격자들에게 수업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과정의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히 신학생들은 담임교수의 지시에 따라 실제 전도 활동에 참여하는 등 실습교육에도 강조점을 두었다. 아울러 합회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교비생들은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매일 평균 1시간씩 노동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신학교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졸업과 더불어 전원 일선 사역의 길로 나갔다. 실제로

¹유영순, 113.

²교회지남, 1928년 12월호, 33.

1928년에 신학교에 입학한 11명 학생들은 신학과정을 이수한 후 1930년에 일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 전인진, 박원실, 김봉덕, 하정환 등은 서선대회, 박부실, 강진하, 오영섭, 김명길 등은 중선미션, 이런찬, 이성옥, 장재복 등은 남선미션으로 각각발령을 받아 사역자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부별히 이들은 1930년 1월말에 개최된 춘기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따라 6월에 졸업식을 거행하기 전에 2개월 보름간특별전도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강진하, 리런찬, 박원실, 박부실 등 4명은 평양에서, 오영섭, 이성옥, 하정환 등 3명은 황주에서, 김봉덕, 장재복, 김명길, 전인진 등 4명은 안주에서 각각 대전도회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신학생들은 입학 전 권서인 활동과 졸업 전 전도회 활동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목회의 경험을 이수하게 되었다.

신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부인신학교에 대한 언급을 빼놓을 수 없다. 재림교회 지도 자들은 여성들의 신학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감안하여 1920년대에 이미 스캇의 지도 하에 부인신학교도 운영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오덕순, 김의석이 1920년대 초에 2년 과정을 수료하고 전도 목회 일선에서 활약하였다. 한편 1924년 봄에는 정복순, 전마리아, 장미리암 등도 부인신학교를 졸업하여 일선에서 사역에 종사하는 등 남자 못지 않게 준비된 일꾼들로 사역 일선에서 활약하였다. 부인신학교의 학생 수도 1924년에 11명, 1925년에 6명 등이 공부하고 있었음을 볼 때 이 사업 역시 의명학교 신학교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3 과거 우리 민족의 정서상 남녀의 접촉이 쉽지 않은 시대임을 감안할 때 여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여성 사역자를 양성하고자 했던 부인신학교는 문화적 상황을 고려한 매우 적절한 사업 중의 하나였다.

의명학교 교장이자 조선합회 교육부 서기를 맡았던 하워드 리 목사는 조선합회 제 6회 총회(1929)에서 부인신학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전도부인 양성과를 경영해 나가는데 이것은 두 반으로 나누어 6년제의 초등과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2년 동안 성경, 한문, 산술 등 기타 필요한 과목들을 배우게 한 후에 전도부인 양성과를 진급시킵니다. 이 본과에서 2년간 수업을 받은 이들은 합회에서 전도부인이 될 자격을 줍니다.4

부인신학교는 1930년대에 이르러 신학교 역시 남녀공학이 실시되기까지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부인 신학교를 마치고 일선 사역에 임용 배치되었는데 하의덕은 서선대회, 김인덕은 중선미션, 윤순학은 남선미션, 임숙빈은 의

¹교회지남, 1930년 3월호, 29.

²상게서; 교회지남, 1930년 7월호, 30.

³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33, 140.

⁴하워드 리, "의명학교 보고," 교회지남, 1929년, 7월호, 14.

명학교 교사 등으로 각각 임명되었다.1

4) 동맹휴학 발생(1924년)

학교가 발전 도상에 있던 1924년 6월에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발생하여 삼육교육은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많은 학교들의 동맹휴학은 1919년 3.1운동 이후 전국에 걸쳐서 나타났던 학생운동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정리해 놓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동맹휴학은 1920년부터 1935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 연도 | 건수 | 연도 | 건수 | 연도 | 건수 |
|------|----|------|-----|------|----|
| 1920 | 20 | 1926 | 55 | 1932 | 33 |
| 1921 | 33 | 1927 | 72 | 1933 | 38 |
| 1922 | 52 | 1928 | 83 | 1934 | 39 |
| 1923 | 57 | 1929 | 78 | 1935 | 36 |
| 1924 | 24 | 1930 | 107 | | |
| 1925 | 48 | 1931 | 102 | | |

[표 8] 연도별 동맹휴학 발생건수

(조선총독부 경무국, <소화 11년 5월 최근에 있어서 조선 치안상황>)

학생들의 동맹휴업은 1926년 6월 10일에 발생한 6.10학생운동을 전후로 해서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6.10학생운동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1926년 4월 26일에 53세의 일기로 의문사(疑問死)하자 그의 인산일(因山日)에 맞춰 만세시위를 벌인 사건을 말한다.² 이 만세사건에서 학생들은 교육의 주권 회복과 일본 제국주의 타파 등을 외치며 일제의 강점에 항거하였다. 이 6.10학생운동 이후로 학생들의 동맹휴학 사태는 식민지교육과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의 독립운동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동맹휴학은 대부분 실력 향상운동에 기초한 학원 내 분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1926년 이전의 동맹휴학의 내용은 대부분 교장 및 교사의 배척이라든가 교수방법 및 교과과정 시정, 학교설비의 확충, 학교 승격 요구 등이 대부분이었다. 특별히 관공립학교들에서는 일본인 교장 및 교사를 중심으로 한 차별교육에 저항하기 위한 동맹휴학이 많았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들에서는 교사의 중축이나 기숙사 확장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실례로 의명학교와 가까웠던 평양숭실중학교에서는 1922년 6월 6일에 600여명의 학생들이 교사의 중축과 이화학실험실 및 박물표본

¹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45.

²이홍식 편, 增補 새국사사전(서울: 교학사, 2002), 922, 923.

의 설치, 기숙사의 확장 등을 요구 조건으로 한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1

1924년에 발생한 의명학교의 동맹휴학 역시 비슷한 성격의 운동이었다. 의명학교에서 동맹휴학이 발생하자 교단 지도부는 의명학교의 운영철학인 삼육교육 이념에 대한 재고와 더불어 학교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 표준을 더 높이기로 결의하고 사임한 리플을 대신하여 하워드 리 목사를 교장에 취임시키는 한 편 학교 강당을 2층으로 증축하고 교사를 확보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학교는 다시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5) 개교 20주년 기념식(1926)

1926년 10월 10일에 의명학교에서는 개교 20주년 축하 기념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당시 상황을 교회지남 소식란에 자세히 남긴 춘범 김창집(春帆 金昌集) 선생의 글을 보면 개교기념 행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된 기념식 본행사와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된 여흥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의명학교는 순안의 중심 교육기관 중의하나였기 때문에 기념식에는 관계기관장들과 지역의 유지들이 참석하였다. 관계기관에서는 평안남도 학부과장, 도시학(道視學), 식산과장들 등이 참석하였으며, 지역의유지들로는 순안의 금융조합, 일본심상 소학교, 보통학교, 면소,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기관장들이 참석하였다. 학부과장은 도지사를 대신하는 훈사를 통해 의명학교의다섯 가지 특징들에 찬사를 보내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2

개교기념식에서 발표된 학교 연혁과 현황은 20여 년 동안 의명학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었다. 특별히 1925년 10월 22일에 학년제를 변경하여 보통과를 6년으로 하고 고등과를 5년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 학제 변경은 한국의 교육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일제의 식민지교육 정책에 의해 한국인 교육기관은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 4년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 교육기관들은 소학교를 6년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중학교도 5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의 중학과정이란 것이 오늘날 중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한 중등교육 과정이었기 때문에 4년은 사실상 전문교육을 받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게다가 초등교육과정 마저 4년으로 한정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교육 기관들에 비해 교육 경쟁력이 너무 떨어졌다. 이에 많은 한국인 학교들은 1920년부터 동맹휴학 등의 방식으로 학년 연장을 주장해 왔다. 그 결과로 의명학교 역시 1926년 학기부터 보통과를 6년으로 하고 고등과를 5년으로 하는 학년제도를 확립하게 된 것이다.3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임에 틀림없

¹한국교육100년사 편찬위원회, 210.

²김창집, "순안행," 교회지남, 1926년 11월호, 14

었다.

기념식에서 이경일 선생에 의해서 보고된 각종 학교 현황은 1926년 당시 의명학교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를 교회지남에 기사로 게재한 김창집 선생의 글에 따르면 그 상황은 이렇다.

지금까지 의명학교를 졸업하고 나간 수효는 121명, 보통과의 103명이며, 현직원은 고등과에 13명, 보통과에 3명이라 한다. 학교에 특별 실업부가 있어서 학생의 반 수 이상은 노동을 해서 학비를 보충하는데, 실업부는 농원, 과수원, 목장, 목공부 등이 있고, 특히 여학생들을 위해서는 식료부, 재봉부, 방직부등이 있다 한다.1

여기에 나타난 학생 숫자는 고등과 남녀학생들의 숫자와 신학교, 부인과 등을 제외한 숫자이다. 보통과에 103명의 학생이 있다는 것은 전년도의 96명에 비해 조금 늘어난 숫자였다. 따라서 학생의 규모는 조금 더 증가한 것을 보여 준다. 이 보고에 나타난 자료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동을 통해서 학비를 보충하고 있다는 말이다. 의명학교는 1911년에 농장을 구입하고 실업부를 설치한 이래학생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동 장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이런 정책적인 측면은 의명학교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자랑 가운데 하나였다. 실제로 이 시기에 의명학교의 실업교육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다루도록 할 것이다.

의명학교가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특별한 교육이념 때문이라는 것이 개교20주년 기념식에서도 발표되었다. 순서 중에는 의명학교의 교육취지라는 순서도 들어 있었다. 이 순서에서 이성의(李性儀) 선생은 의명학교가 "무엇보다 정신적 수양을 치중하여 덕육, 지육, 체육 등을 완전히 베풀되 학생으로하여금 실질적 교육을 받도록 힘쓰고 운동 같은데 들어서도 경기를 위한 것보다도 몸의 건강을 위하여 실시한다"2고 설명함으로써 의명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삼육교육이념을 강조하였다. 의명학교는 이 삼육교육이념을 20년 동안 한결같이 추구하였다. 지난 20년간 의명학교의 많은 발전이 있어 왔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발전은 이 삼육교육이념을 토대로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나아가 한국 사회에진정한 교육정신을 뿌리내리게 한 것이다. 이성의 선생의 발표를 통해서 의명학교는 개교 20년의 의미를 삼육교육이념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

³¹⁹²²년 11월 20일에는 경성고등공업학교 학생들이 학년제를 보통과 6년, 고등과 5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맹휴학이 있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따라 의명학교도 1926년부터 6 년제, 5년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교육100년사 편찬위원회, 210; 김재신, 삼육대학교 90년사, 134.

¹김창집, "순안행," 16

²상게서.

었다.

개교 기념식과 더불어 저녁 시간에 베풀어진 여흥회 순서는 문화발표회로 진행되었다. 이성의 선생의 사회로 진행된 순서에는 합창, 악기 연주, 성악, 영어강연, 동화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행사를 소개한 김창집 선생은 오영섭의 영어강연, 임성기의 기타 반주(평양가), 김이열 어린이의 동화, 김유순 양의 독창, 박경섭 군의 하모니카 독주 등에 희열과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별히 그는 황우진 군의 웅변이 매우훌륭했다고 칭찬했다. 개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된 여흥회는 2년 전에 새로지은 강당에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어 밤 10시에 마쳤다. 1이 행사는 20년 만에이룩한 의명학교의 발전에 방점을 찍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6) 실업교육의 발전(1927)

의명학교의 발전을 이야기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내용이 바로실업교육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1911년 4월에 5천원을 들여 전지 5천 평을 구입하고 농장, 목공장, 목장, 과수원 등을 운영하면서 학교 내 실업부를 설치하여 실업교육을 실시한 것은 삼육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들의 교육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의명학교는 이후 3만평에 이르는 토지를 확보해 에번스 과수원, 스미스 과수원, 딸기농장, 감자농장, 옥수수농장 등을 운영하였으며, 양잠업을 위한 뽕밭을 가꾸었고, 양계장에서는 닭을 기르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러한 농장들에서 오후 시간에 노작을 통해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학업에 정진할수 있었다.

1927년 들어서 의명학교의 실업부는 한 때 획기적인 발전을 경험하게 된다.² 특별히 실업부 내에 있던 식료품제조부(식료부)의 판매고가 상승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우어스(Lyman I. Bowers, 表來萬) 선교사가 있었다. 1917년 6월에 내한한 바우어스는 미션에서 회계 업무를 보다가 1919년에는 시조사총무, 1925년에는 조선합회 서기 겸 회계로 피선되어 활동하였다.³ 이처럼 주로 총무 겸 회계의 업무를 담당했던 바우어스는 1926년 의명학교의 실업부 주임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그해 2월 5일에 개최된 평의원회에서 "조선합회 서기 겸 회계로 있던 바우어스로 하여금 순안에 이전하여 의명학교 직원이 되게 하고 이 학교를 진정한 실업학교가 되게 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이었다.⁴ 이 결의에 따라서 의명학교 실업부의

¹상게서, 17.

²식료부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다. 유영순은 그의 회고담에서 바우어스의 생애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판매부 사업이 잘되지 않아 적지 않은 손실을 본 것 같"다고 기록하고 있다. 유영순, 105.

³이영린, 48, 52, 55.

책임자로 자리를 옮긴 바우어스는 학교 내에 식료품 공장을 세우고(1926년 3월에 기공하여 5월 9일에 준공함) 의욕적인 식품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때 세워진 새 공장은 규모와 시설 면에 있어서 최신식 공장이었다.

공장이 세워지기 전 의명학교 실업부에 소속된 식료품제조부는 고학생들의 손에 의해 생산된 식료품들을 판매하여 연평균 350원 가량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새공장의 준공과 더불어 많은 식품들을 생산하고, 또 국내외로 다양한 판매처를 확대하면서 반년 만에 수입이 10배 가까운 3천2백여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일본과봉천에 특약점을 설치하고 경성에도 판매를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추진한 바우어스의 노력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특별히 경성에서는 강형모 씨가 특약판매점을 50여 곳이나 확장하여 한 여름에도 20일 만에 300여원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등 식료품 판매고를 증대시켰다. 1의명학교 실업부의 식료품제조부가 당시에 생산한 생산품들로는 순전한 밀가루, 옥수수가루, 보통 밀가루, 그라노라, 낙하생 버터, 관에 넣은 옥수수, 토마토, 배, 완두, 복숭아, 포도즙 등이 있었다. 이처럼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그 생산한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들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게 되자 의명학교의 실업부는 일약 유명해졌다. 이런 유명세에힘입어 1927년 7월 8일자 조선일보에는 "고학의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의명학교에 대한 뉴스가 다음과 같이 게재되기도 했다.

경의선 순안에 있는 사립순안학교에서는 일반 고학생(苦學生)을 위하여 학교 안에 순안식료품 제조소(順安食料品製造所)를 두어 과실과 소맥분, 관헐, 견과식품 등을 제조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학생들을 사용하여 그 성적이 대단히 좋다는 바 이곳에 와서 유학하는 고학생은 매월 이삼원씩만 보조가 있으면 넉넉히 공부할 수 있다 하며, 그 동안은 전적으로 외국으로 수출만하여 외국시장에서 상당한 신용을 얻어오던 터인데 금번에는 그것을 더 확장하고 고학생을 더 많이 수용하고자 내국의 판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학교 당국자의한 사람인 강형모(康亨模) 씨외 삼씨가 경성에 올라와 시내 각 식료품상점과 특약을 체결하는 중이라더라.2

1920년대 후반 의명학교의 실업부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은 질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의명학교 식료부의 제품들은 조선물산 바자회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이었다. 더욱이 1928년 4월 하순에 서울에서 개최된 바자대회에서는 일반관람객들의 투표에 의해 당당히 2

⁴교회지남, 1926년 2월호, 31.

¹교회지남, 1927년 9월호, 28.

²조선일보, 1927년 7월 8일자;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37, 138.

등에 당선되기도 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안식일이 포함되어 의명학교는 부득불 안식 일에는 전시물품들을 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대한 호평으로 시상의 영예를 안 게 되었다.1 의명학교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신뢰할만한 좋은 제품이었다는 사실은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 선생의 일화에서도 입증된다. 안창호 선생은 민족계몽운동 을 위해 함께 활동했던 세브란스 출신의 김창세 박사와 동서지간이었다.2 김창세 박 사는 재림교회 초기 사역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승원 목사의 아들로 세브란스 의학교 를 졸업한 후 순안병원의 러슬 의사 밑에서 수련을 받고 중국 상해에 있는 재림교회 병원인 홍십자병원(중국 위생병원의 전신)에서 일하는 등 재림교회 초기에 의료전문 가로서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3 안창호 선생은 김창세 박사와의 인척관계로 인 해 재림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자연히 의명학교 식료부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안창호 선생은 임종 전날 병실을 방문하여 음식을 권하는 선우 휘 씨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의명학교에서 만든 포도즙에 대하여 언급하였다.4 "나는 아무 것도 먹을 수 없소. 그렇게 원하다니 순안안식교의 제품인 포도즙은 진정품인데 안국동 남계양행에서 파니 용기까지 가져오면 한 번 시험하겠소."5 의명학교 식료부 에서 만들어진 포도즙에 대한 안창호 선생의 평가는 당시 이곳에서 만들어진 제품들 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대변해 준다. 이러한 평가들은 재림교회가 추구했던 실업교 육의 가치를 보여준다.

의명학교 실업부의 명성은 재림교회가 실업교육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삼육교육이념이 구체화된 결과였다. 여기서 의명학교가 추구했던 실업교육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학교가 정한 세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일의 목적과 내용들을 규정한 노동세칙은 다음과 같다.6

- ① 본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운동과 실업에 대한 훈련을 체험케 하고, 또한 빈곤한 생도로 약간의 학비를 벌게 하기 위하여 실업부가 필요함.
 - ② 실업부의 실습장은 다음과 같음-과수원, 식료공장, 목축, 소제(청소), 기타.
 - ③ 본교 노동생 외에라도 노동이 있을 경우에 임시로 학생들에게 노동을 허락하는

¹교회지남, 1928년 6월호, 32.

²안창호 선생은 조부의 주선으로 이석관의 장녀 이혜련과 결혼하였으며, 김창세 박사는 이석관의 둘째 딸 이신실과 결혼하게 되어 안창호 선생과 동서지간이 된다.

³김창세, "민족위생을 개론함," 시조, 1926년 1월호, 29; 연세대 사학과 박윤재 교수는 삼육대학교 이종근 교수의 도움을 받아 김창세 박사의 생애 및 공중위생활동을 다음의 논문에 자세하게 발표하고 있다. 박윤재, "김창세의 생애와 공중위생 활동,"醫史學, 제15권 제2호(통권 제29호), 2006년 12월, 211-225.

⁴선우 휘 씨는 조선일보 주필로 활동하였던 인물이다.

⁵주요한 편, 안도산전서(서울: 삼중당, 1963), 485.

⁶교회지남 1930년 2월호, 16, 15.

일이 있음.

- ④ 노동은 매일 오후마다 4시간씩 하되 전일 노동생과 반일 노동생의 구별이 있음.
- ⑤ 전일 노동생에게는 학년 간에 10개월 간 노동을 허락하되 농기 휴업 시부터 1개월 반 동안은 노동이 없음.
 - ⑥ 반일 노동생은 학년 간 5개월 동안 노동을 허락함.
- ⑦ 노동생은 노동시간에 매월 6원 가량 수입을 얻을 수 있음. 그외 학비 전부는 반 드시 보호자가 담당함.
- ⑧ 학비 일부를 부득이 실업부에 의뢰해야 할 자는 입학 전에 본교장에 승낙서를 받을 것.
- 이 세칙에 나타나는 것처럼 의명학교가 실시한 실업교육은 노작교육을 통해 빈곤한학생들의 학비를 돕고자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실습장들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 하에서 실업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실업교육은 당시 한국의 사립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이념에따라 이후 계속 이어지는 삼육교육에 있어서 실업교육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되었다.

제6장 의명학교의 운명

 $(1931 \sim 1937)$

1930년대 들어서 의명학교는 중대한 기로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 시기의 한국 교육은 여전히 제2차 조선교육령의 영향 하에 있었다. 따라서 학교운영 자체만으로 큰변화를 경험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였다. 학교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1930년대 말에 민족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교육정책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제3차 조선교육령 개정(1938년 3월) 등이었다. 이러한 황민화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전이었던 1930년대에 의명학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새로운 교육환경을 맞게 된다. 특별히 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의명학교는 삼육대학교의 전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새로운 운명에 놓이게 된다. 즉 삼육대학교는 전신인 의명학교시대를 지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장에서는 의명학교의 운명을 다루고 그 이후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삼육대학교의 초기 역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1. 의명학교의 상황(1930)

의명학교는 1926년부터 학제를 보통과 6년, 고등과 5년으로 연장하여 일본인 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히 보통과(초등과정), 고등과(중등과정) 이외에 신학교(고등과정)를 한 학교 내에서 운영함으로써 종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의명학교는 전국으로부터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몰려왔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도 갖추고 있었는데, 1930년대에 이르러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약 120명 정도 되었다. 학교는 이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1913년에 남녀 기숙사를 증축 및 개축한데이어, 1929년에도 5천원을 들여 또다시 증축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었다.1

1930년대 들어서 의명학교의 지도자들은 전국 교회에 학교의 현황을 자세하게 소개하기 위하여 교단 기관지인 교회지남에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게재하였다. 그 기사의 시작에서 이경일 선생은 의명학교의 연혁을 소개하면서 학교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본교 창립 이래 임의 교문을 나간 자가 156명이며, 현재 재적생이 153명(그 중에 여생도가 40명)이요. 현재 교원 수는 내지인(일본인) 3인, 조선인 8인,

¹교회지남, 1930년 2월호, 6.

서양인 4인 합하여 15인입니다."1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의명학교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서는 신학교가 의명학교로부터 분리되어 서울로 이전하기 직전까지 학교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들에 근거해서 당시 의명학교의 상황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고등과 재적학생 일람2

1930년 현재, 고등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총 154명이며, 이중 남자가 114명, 여자 가 40명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에 57명(남 42, 여 15), 2학년에 45명(남 29, 여 16), 3학년에 29명(남 22, 여 7), 4학년에 13(남 11, 여 2), 5학년에 10명(남 10)의 학생들 이 있다. 연령별로는 남자들은 25세에서부터 13세까지, 여자들은 20세에서부터 14세 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학생들 중 기혼자는 25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미혼인이며 특별히 여학생들 가운데는 기혼자가 없었다. 침례자 여부와 관련해 서는 116명이 침례를 받은 학생들이었으며, 38명은 침례를 받지 않았다. 이는 전체 학생 중 24.7%가 교인이 아닌 일반 학생들이었음을 말해준다. 전일 노동 또는 반일 노동을 통해서 학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과 노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 은 85명 대 69명으로 55.2% 대 44.8%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업교육 프로그 램의 혜택을 입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실업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의명학교의 보 통과를 비롯해 재림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12개 소학교 출신으로 의명학교 고 등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93명으로 60.4%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약 40%의 학 생들은 재림교회 소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한 편 지역별로는 순안이 위치한 평안남도 출신의 학생들이 9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전국에 걸쳐 서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기숙사 제도가 정착될 수밖에 없었다.

[표 9]고등과 재적학생 일람표(1930년 1월 1일 현재)

| 학년별 | | 1ই | 년 | 2ই | 2학년 | | 3학년 | | 4학년 | | 5학년 | | 합계 | |
|---------|-----------------|-------|-------|-------|-------|-------|-------|-------|-------|-------|-----|-----|----|--|
| 위선절 | | 남 | 녀 | 남 | 녀 | 남 | 녀 | 남 | 녀 | 남 | 녀 | 남 | 녀 | |
| 생도수 | | 42 | 15 | 29 | 16 | 22 | 7 | 11 | 2 | 10 | | 114 | 40 | |
| 연령(최고/최 | ^목 소) | 17/13 | 18/14 | 26/15 | 20/15 | 25/17 | 20/16 | 20/16 | 17/16 | 24/18 | | | | |
| 기 혼 | | 4 | | 7 | | 8 | | 2 | | 4 | | 25 | | |
| 미 혼 | | 38 | 15 | 22 | 16 | 14 | 7 | 9 | 2 | 6 | | 89 | 40 | |
| 침례 | 否 | 20 | 3 | 2 | 1 | 1 | | 2 | | | | 34 | 4 | |
| 심데 | 受 | 22 | 12 | 18 | 15 | 21 | 7 | 9 | 2 | 10 | | 80 | 36 | |
| 후견인침례 | 否 | 20 | 4 | 9 | 4 | 7 | 1 | 1 | | 3 | | 40 | 9 | |

¹상게서.

²상게서, 13.

| | | 受 | 22 | 2 | 20 | 12 | 15 | 6 | 10 | 2 | 7 | 74 | 4 |
|----|-----|-----------------------|----|----|----|----|----|---|----|---|----|-----|----|
| | 노 동 | | 3 | 2 | 7 | 7 | 16 | 2 | 6 | 1 | 6 | 38 | 12 |
| | 반노동 | | 9 | 1 | 9 | 2 | 5 | 2 | 4 | | 2 | 29 | 6 |
| | 자 비 | | 30 | 12 | 13 | 6 | 1 | 3 | 1 | 1 | 2 | 47 | 22 |
| 본교 | 소학교 | 否 | 17 | 5 | 9 | 5 | 10 | 2 | 7 | | 6 | 49 | 12 |
| 졸 | 업 | 受 | 25 | 10 | 20 | 2 | 12 | 5 | 4 | 2 | 4 | 65 | 28 |
| | 경기 | ']도 | 3 | 2 | 3 | 2 | 1 | 1 | 1 | | 1 | 9 | 5 |
| | 충 | 성도 | 1 | 1 | 1 | | 2 | | | 1 | | 4 | 1 |
| | 평 | 남 | 24 | 9 | 18 | 9 | 15 | 5 | 7 | 2 | 3 | 67 | 25 |
| _ | 평 | 북 | 1 | | | | 1 | | | | | 2 | |
| 도 | 황천 | 개도 | 6 | | 1 | 1 | 2 | | | | 3 | 12 | 1 |
| | 함 | 남 | 1 | | 1 | 1 | | 1 | 1 | | | 3 | 2 |
| | 함 | 북 | | | | | | | | | 1 | 1 | |
| 별 | 경선 | 상도 | 2 | 2 | 1 | 3 | 1 | | | | | 4 | 5 |
| - | 전리 | | 2 | | 1 | | | | 1 | | | 4 | |
| | 강위 | <u> </u> | 2 | 1 | 1 | | | | | | 2 | 5 | 1 |
| | 북진 | · - - - - | | | 2 | | | | 1 | | | 3 | |
| | 합 | 계 | 42 | 15 | 29 | 16 | 22 | 7 | 11 | 2 | 10 | 114 | 40 |

2) 학년별 교과과정 및 시수

의명학교 고등과의 교과과정은 1911년 제정하여 1915년에 개정된 사립학교 규칙에 준하는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사립학교(고등과)들이 일 반적으로 가르치던 교과목들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성경과 목이다. 의명학교는 매 학년마다 5시간씩 성경을 가르치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였다. 이는 의명학교가 그 설립 취지에 맞게 기독교 교육을 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의미가 있다.

[표 10]학년별 교과과정 및 시수표

| | 시수 | 1 %)) -} | 기스 | 0%)) 4 | 시수 | 0.80.4 | 112 | 48014 | 시수 | F-8/11-4 |
|-----------|--------|----------|-----|----------|-----|----------|-----|----------|-----|--------------|
| | 시ㅜ | 1학년 | 시수 | 2학년 | ^ T | 3학년 | 시수 | . – | 시ㅋ | |
| 수 신 | 1 | 도덕 | 1 | 도덕 | 1 | 도덕 | 1 | 도덕 | 1 | 도덕 |
| 성 서 | 5 | 신구약전서 | 5 | 신구약전서 | 5 | 신구약전서 | 5 | 신구약전서 | 5 | 신구약전서 |
| 국 어 | 7 | 강독작문 습자 | 7 | 강독 작문 습자 | 5 | 강독 작문 문법 | 4 | 강독 작문 문법 | 4 | 강독 작문 |
| 조선어 한문 | 3 | 강독 작문 문법 | 3 | 강독 작문 문법 | 2 | 강동 작문 | 2 | 강독 작문 | 3 | 강독 작문 |
| (م (م | 9 4) = | 발음 철자 읽기 | | 읽기 말하기 | | 읽기 말하기 | | 읽기 말하기 | _ | 읽기 말하기 |
| 영 어 | 5 | 해석 말하기 등 | 6 | 쓰기 해석 작문 |
| 역사 | 3 | 일본역사 | 3 | 일본 역사 | 3 | 동양역사 | 3 | 서양역사 | 3 | 서양역사 |
| 지리 | 3 | 일본지리 | ్ చ | 외국 지리 | 3 | 외국지리 | - చ | 외국지리 | ్ చ | 일본 역사 지리 |
| 수 학 | 4 | 산술 | 4 | 대수 | 5 | 대수 기하 | 4 | 대수 기하 | 4 | 대수 기하 삼각법 |
| 박 물 | 2 | 식물 | 2 | 동물 | 2 | 생리 위생 | 3 | 광물 통론 박물 | | |
| 물리 화학 | | | | | 2 | 물리 | 4 | 물리 화학 | 4 | 물리 화학 |
| 법제 경제 | | | | | | | | | 1 | 법제 경제 |

| 실 업 | | | | | | | | | 1 | 농법 |
|-----|----|----------|----|----------|----|----------|----|----------|----|----------|
| 도 화 | 1 | 자재화 | 1 | 자재화 | 1 | 자재화 용기화 | 1 | 자재화 용기화 | 1 | 자재화 용기화 |
| 창 가 | 1 | 단음 원음 복음 | | | | | | | | |
| 체 조 | 2 | 체조 교련 육회 |
| 계 | 34 | | 34 | | 34 | | 34 | | 34 | |

사실 1915년 개정된 사립학교규칙은 학무국장 세키야(關屋貞三郎)의 설명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거나 종교상의 의식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하"려는 요지를 담고 있었다. 이러한 규칙은 제6조 2항의 교과과정에 대한 규정에서 구체화되어 있다. 그 조항에는 "사립학교의 교과과정은 보통학교 규칙, 고등보통학교 규칙,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 실업학교 규칙 또는 전문학교 규칙에 준하여" 정해야 하며, 이러한 규칙들이 "규정한 이외의 교과 과정을 부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개정안이 발표되자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의 반발이 심해졌다. 특별히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많은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은 "성서교육의 허락" 등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사이또 마코토 총독에게 보내는 등 집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이 새 법령을 가지고 기존에 설립된 사립학교에 적용할 때는 학교 경영자나 또는 학교 생도들의 불편이 적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10년간의 유예"를 주는 조건으로 개정 사립학교규칙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내에서 성경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별히 이 규칙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1925년이후에도 여전히 근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대부분의 기독교계 학교에서 성경과목이 여전히 가르쳐졌기 때문이다. 의명학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의명학교에서는 매주 5시간씩 성경과목을 가르쳤는데 1학년은 구약사기. 2학년은 신약사기, 3학년은 재림교회사와 예언의신, 4학년은 재림교회 교리, 5학년은 성경의 유래와 확증, 재림교회 각부 사업 등을 가르쳤다.

- 3) 교직원과 교과목 일람표
- 이 시기의 의명학교의 교직원과 교과목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표 11] 교직원 및 교과목 일람표

| 성명 | 직명 | 담임교과목 |
|------------|----|------------|
| 하워드 리(이희만) | 교장 | 성경 |
| 이경일 | 교감 | 박물 |
| 감항모 | 교원 | 성경 |
| 나오하시(猶橋友直) | n, | 국어, 역사, 지리 |

¹關屋貞三郎,, "사립학교 규칙 개정의 요지," 조선휘보, 1915년 4월호, 24; 김숭태,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사 자료집, 기독교편(1910-1945)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95. 2상게서.

| 히가시(東文吾) | n, | 국어, 역사, 지리, 체조 |
|------------|---------|----------------|
| 클린턴 리(이시화) | n | 영어 |
| 마즈모도(松本勝正) | " | 물리, 수학, 국어 |
| 장한진 | " | 영어, 식물 |
| 이용한 | n, | 화학, 박물 |
| 곽기호 | n, | 조선어, 한문 |
| 현연훈 | 교원 및 회계 | 산수, 대수 |
| 탁 걸 | 교원 | 성경, 영어 |
| 탁걸부인 | n, | 도화 |
| 김상칠 | " | 영어, 창가 |
| 이은애 | n, | 음악 |
| 스 캇 | n, | 여사감 |
| 임숙빈 | " | 여사감 |
| 이종삼 | 교원 | 1,2학년(보통과) |
| 고봉건 | " | 5,6학년(보통과) |
| 장정보 | " | 3,4학년(보통과) |

4) 의명학교 생도 모집요항(1930)

1930년도에 교회지남에 소개된 의명학교 학생 모집요강은 당시 학생 모집의 규모 및 입학절차와 학비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에 여기에 그 전체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의명학교에서는 고등과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강을 게재하였다.1

[1] 본교의 목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내 청년에게 기독교 도덕을 기본으로 한 고등 보통교육 및 실업교육을 베풀어 자격을 가진 본 교회 교역자를 양성하기로 목적함.

- [2] 수업연한 5개년
- [3] 모집인원

제1학년 남자 50명, 여자 25명 제2학년 보결생 약간명

- [4] 입학원서 제출기간: 3월 31일까지(용지는 본교에서 배부함)
- [5] 입학시험일

4월 7일(월) - 국어, 산술, 조선어 8일(화) - 국사, 지리, 이과

- [6] 개학일자 4월 10일(목)
- [7] 입학지원자의 자격
 - (1) 연령 만 12세 이상의 품행이 방정하고 신체 건강한 자.

¹교회지남, 1930년 2월호, 16, 15(내용이 16페이지에서 시작하여 15페이지에서 마친다).

- (2) 수업연한 6년의 보통과를 졸업한 자 혹은 그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
- (3) 본교의 목적과 규칙을 준수키로 하고 각 지방대회장의 천거가 있는 자.
- [8] 제2학년 보결시험과목

성경, 국어, 산수, 역사, 지리, 선한문, 식물, 영어

[9] 학비

수험비 1원. 입학금 2원, 학기금 50전, 수업료 1개월분 - 남자 2원 50전, 여자 2원. 기숙사비 - 남자 50전, 여자 40전, 기숙사 식비(1개월분) - 남자 약 7원, 여자 약 6원, 서적비 매년 약 10원, 교복대 - 하복 6원, 동복 7원.

- * 단 수업료, 식비, 기숙사비는 매월 1일 이내로 선납함을 요함.
- * 입학시험 장소

서선지방 - 평남 순안역전 사립의명학교

중선지방 - 경성 동대문외 회기리 사립동명학교

남선지방 - 경북 경산군 사정리 사립경명학교

위의 입학요강에는 의명학교의 교육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것은 "재림교회의 청년들에게 기독교 도덕을 기본으로 한 고등보통교육 및 실업교육을 실시하여교역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의명학교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목적은 의명학교의 존재의 이유와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교육목적과 관련해 쟁점이 발생하게되면 그것은 곧 의명학교의 존폐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몇 년 후 의명학교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시련을 맞이하게 되면서 새로운 운명에 놓이게 되는데그 문제는 후에 다루고자 한다.

5) 학생들의 각종활동

학교 내에서 학생들은 수업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다. 의명학교에서의 학생활동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발전하였다. 그 첫 번째 분야는 종교부를 중심으로 한 신앙활동이었다. 1911년에 이미 학교 내에 청소년 의용선교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것과 같다. 이 외에도 의명학교 내에서 종교활동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안식일학교, 청소년선교회(MV 또는 JMV), 문서선교, 수확운동, 전도회 등이 있었다.1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재림교회가 청소년 선교 및 교회 선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던 사업이었다. 특별히 문서선교와 수확운동, 전도회 등은 인적 재원이 풍부한

¹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40.

학교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문서선교의 경우 1928년에 나타난 한 자료에 의하면, 의명학교에서 직원과 학생들이 문서선교에 참여하여 이틀 동안에 2백 9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는 서선대회 표준인 500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시 의명학교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었다. 1 전도회의 경우도 신학교 졸업반에 있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의명학교 내의 많은 학생들이 지역 곳곳으로 전도회를 하기도 하고, 이웃 마을들을 다니며 아녀자들과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등 다양한 계몽활동과 함께 실시하였다. 이런 종교활동은 의명학교 학생들이 전개한 활동 중에 가장 두드러진 내용이었다.

종교활동과 더불어 의명학교에서는 다양한 운동 및 음악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자질을 함양하였다. 특별히 히가시(東文吾) 선생과 김명연 선생의 지도로 축구, 배구, 스케이트, 마라톤 등 각 분야에 걸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 분야 중에서도 특별히 마라톤과 스케이트에서는 지역 내에서 이름을 떨칠 만큼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도 있었다. 마라톤에는 오동우, 김덕순 학생이 이름을 날렸고, 스케이트에서는 최승만 학생 등이 이름을 날렸다. 특별히 이러한 종목 외에도 씨름, 정구,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들을 즐겼다. 음악부의 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탁걸 부부가 음악부를 맡으면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음악부 활동 가운데는 남성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의 활동이 눈에 띄었는데, 1932년에는 탁걸부인이 편집한 찬양곡집(146면)을 발행하기도 해 합창 분야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의명관악단을 창단해서 활동하기도 했다. 2학생활동과 관련해서 학생들은 해마다 수학여행을 다녔고, 의명학우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회보도 발행하였다. 3

6) 졸업자 상황4

의명학교는 1913년 제1회 졸업생 6명을 배출한 이래 1927학년도까지 총 15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 중에 83명이 사역자로 발령을 받아 학교와 병원과 교회의 사역자로 배출되었다. 이 통계에 들어 있지 않은 1928년도 졸업식에서도 11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그 중 6명이 사역에 참여하였다.5

[표 12] 졸업횟수별 졸업자수

| 회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계 |
|----|---|----|---|----|----|---|----|---|---|----|----|----|----|----|----|-----|
| 명수 | 6 | 14 | 7 | 16 | 13 | 4 | 11 | 7 | 1 | 13 | 11 | 8 | 20 | 12 | 14 | 156 |

¹교회지남, 1928년 7월호, 23.

²의명학교 졸업앨범, 1938년도 참고.

³회보발행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교회지남 1928년 3월호, 32.

⁴교회지남, 1930년 2월호, 11.

⁵교회지남 1928년 4월호 32; 교회지남, 1928년 5월호, 1.

사역수 1 4 3 6 5 2 4 4 0 10 6 5 15 9 9 83

의명학교에서는 졸업생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인원들이 교역에 종사하게 되어 사실 상 재림교회 지도자 양성학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명학교가 "세상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에 대한 고등기술이나 과학상 지식을 전 문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종교상 지식과 품성을 수련시켜 하늘의 빛을 전할 만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것이다.1 사람을 변화시 키는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을 꿈꾸는 삼육교육이념은 이때부터 이미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던 비전이었다. 이러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시설과 규모를 가진 학교였기 때문에 의명학교는 시골 궁벽한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사에 있어서 중요한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은 역사 안에서 삼육대학교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된다.

의명학교가 학생들에게 뿌듯한 자긍심을 심어주었던 것은 안도경이라는 학생의 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의명학교 고등과 5학년 학생이었던 그는 경의선 연변에 있는 순안이라는 궁촌에 위치한 작지도 크지도 않은 양식 벽돌 이층 건물을 가진 의명학교는 "참으로 놀랄 만하며 참으로 위대"하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명학교의 교육이념과 그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주고 있다. "여기서는 세상과학을 연구하며 만유의 창조주이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에덴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에게 물려주신 귀중한 실업을 또한 배웁니다." 그의 예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의명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과학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진리를 연구하고 나아가 실업교육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기술을 익히는 그야말로 신체와 지성과 영성을 균형지게 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이었다. 이러한 교육의 장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사업을 발전시켰고, 그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열심히 활동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2. 신학교의 분리(1931)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의명학교는 최초의 설립목적인 청소년 양성학교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중심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아 왔다. 특별히 1917년부터 시작된 전문과정으로서 신학교는 재림교회의 사역자 양성기관으로서고등교육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선교사들의 사정과 교회 내의 사정으로 중간 중간에 휴지기간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 당시 교회의 결정에 따른 조처였다. 이런 변화의 와

¹교회지남, 1930년 2월호, 11.

²안도경, "의명은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지남, 1930년 2월호, 12.

중에서도 신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들어서 신학교육 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 역사적상황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선교의 중심, 순안에서 서울로!

재림교회의 사업이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친 순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교단 지도부는 점차로 교회사업의 중심을 서울로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에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의명학교에서 개최되어져 왔던 합회 총회가 1925년 제4회부터는 서울의 동명학교(서울삼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실시되기 시작했다. 이후 제5회(1927), 제6회(1929) 합회 총회도 모두 서울서 개최되는 등 점차로 교회 사업은 순안이 아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게 된다.

재림교회의 중심이 순안에서 서울로 완전히 옮겨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에 있는 합회본부 건물의 화재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교회본부가 순안에서 서울로 옮겨진 것은 1909년 9월의 일이었고, 회기리에 본부 건물을 지으면서 본격적인 서울 시대를 연 것은 1912년 겨울(1913년 2월 헌당)이었다. 이 때 지어진 건물이 1930년 1월 24일에 화재로 인해 전소되어 버리고 말았다. 당시합회장이었던 오버그 목사는 "아침에 잠을 달게 자고 있을 때 '불이야!'라는 소리에놀라 깨어 보니 천만 뜻밖에 시조사 공장실 뒷문으로 활활 타는 불길이 내비치고 … 건잡을 수 없는 불길은 마침내 합회 본부의 각부 사무실과 중선대회 본부 사무실과시조사의 각부 사무실과 공장을 살라버"렸다고 애통한 심정으로 기록하였다. 2 이 사건이 재림교회에 끼친 영향은 컸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해 6월 14일을 본부 건물 재건 헌금일로 정하고 일제히 헌금하여 4,413원 32전을 모금하여새로운 본부 건물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 이와 더불어 미국으로부터 지원된 지원금 및 보험금을 합하여 총 56,214원 54전을 들여 합회본부와 시조사와 예배당과 중선대회 건물 등을 그해 12월까지 완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새롭게 지어진 합회 본부 건물과 예배당 및 시조사 건물 등은 이전보다 더 훌륭한

¹이영린, 54.

²교회지남, 1930년 3월, 2.

³헌금을 지방별로 살펴보면 서선 2,162원 12전, 중선 1,307원 40전, 남선 788원, 북선 159원 80전 등이었다. 교회지남, 1930년 6월호, 3; 교회지남, 1930년 8월호, 24.

⁴당시의 건물 규모는 다음과 같다. 합회 본부 45평(공사비 12,000여원), 시조사 137평(24,000여원), 예배당 85평(15,000여원), 중선대회 사무실 24평(2,956원 15전). 교회지남, 1930년 12월호, 100; Edward J. Urquhart, "Up From The Ashes," Review and Herald, October 29, 1931, 14.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전화위복이었던 것이다. 새로운 건물이 완성되고 본부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갖추게 되자 재림교회의 중심은 더욱 더 빠르게 순안에서 서울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 건물들이 있기 전까지는 의명학교에 있던 예배당이 가장 컸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그곳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서울에 커다란 예배당이 완공되면서이제는 그곳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선교전략들이 수립되었다. 그 변화된 전략 중의하나가 바로 신학교를 순안에서 서울로 옮기는 일이었다. 아울러 교회 지도자들은 신학교뿐만 아니라 병원도 서울로 옮기기로 결의하였다. 병원도 서울에 세우고 순안병원은 분원으로 삼아 선교의 중심인 서울에서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추진하기로 한것이다.1 이렇게 해서 선교본부와 출판소에 이어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마저 서울로이전하게 되니 재림교회의 중심은 순안에서 서울로 완전히 옮겨지게 된다.

2) 신학교의 서울 이전

1928년 10월에 클린턴 리 목사의 귀국과 더불어 재개한 의명학교 신학교에서 교육 받은 11명의 신학생들은 1930년 4월 28일에 거행된 신학교 제6회 졸업식에서 수료 증을 받고 일선 사역자로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또 다시 12명의 신학생들로 채워졌다. 그 해에 새로 입학한 신학생들은 손재숙, 방례두, 이여식, 김정호, 정태규, 이좌익, 우필원, 이기선 등 교비생 8명과 이봉찬, 배혜경, 문리빈, 이면득 등 자비생 4명 등 모두 12명이었다. 이들은 우선 4월과 5월 2개월간 권서활동에 참여하게된다. 문리빈과 방례두는 강계, 자성, 후창, 위원 등지에서 권서활동을 하여 약 900원의 수입을 올렸고, 정태규는 권서원 김철주와 동반하여 삭주, 창성, 벽동, 초산 등지에서 활동하여 약 5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봉찬은 개인사정상 거주지 근방에서 활동하여 약 200원을 벌었고, 이여식은 단독으로 경성에서, 오형필과 같이 갑산, 삼수 등지에서 권서활동을 하였다.2

이처럼 문서선교 활동을 통해서 신학생으로서의 예비 과정을 통과한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2년 과정의 신학을 공부하던 이들 12명의 학생들은 1931년에 이르러 중 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몸담고 공부하던 신학교가 순안에서 서울로 옮겨지도록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결정은 1931년에 열린 제7회 조선합회 총회에서 내려졌다. 3 당시의 합회 총회는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 회기리에 새롭게 지어진 본부예배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교단의 중심이 순안에서 서울로,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본부가 있던 회기리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

¹Reviwe and Herald, August 13, 1936, 10; 이영린 181.

²교회지남, 1930년 7월호,

³교회지남, 1932년 2월호, 32; 교회지남, 1932년 5월호, 32.

다. 이와 더불어 교단의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인 총회가 의명학교에서 서울 동명학교로, 그리고 다시 회기리 본부예배당으로 옮겨지면서 현재까지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회기리(회기동)는 이후 많은 세월동안 한국 재림교회의 중심이 되었다. 이곳에서 1월 10일 안식일에는 약 500명의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안식일 예배를 드렸다. 그 날 대총회에서 온 브랜슨(W. H. Branson) 목사와 원동지회장 그릭스(F. Griggs) 목사 등의 설교가 있었는데 순서 가운데는 의명학교 오케스트라의 합주도 있었다. 이 총회의 마지막 안식일(1월 17일)에는 신축 예배당에 대한 헌당식도 있었다. 그만큼 제7회 조선합회 총회는 서울, 그것도 회기리에 집중되었던 총회였다. 총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회기리에 세워진 본부 건물들과 예배당에 매우 만족하였고 새로운 교회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아래서 총회 대표자들은 신학교를 서울로 옮기기로 결의하게 되었다.

총회 시에 나타난 신학교 이전의 이유는 순안이 너무 협소한 곳이라는 판단이 고려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순안이 지리적으로 볼 때 전국 선교의 중심이 되기는 더이상 어렵겠다는 지도자들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제는 중심지역을 새롭게 이전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곳은 당연히 서울이었다. 특별히 불행 중 다행으로 화재 이후에 본부에 교단의 중심이 될 만한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지도자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업을 구상할 필요에 부응하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사업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지도자들은 서울이 이제 교육사업을 시작할만한 시설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총회를 통해서 신학교를 서울로 옮기기로 최종결정하였다. 총회는 의명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던 신학교를 회기리 본부예배당 동편의날개 방으로 옮겨 조선합회신학교(朝鮮合會神學校)란 명칭으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서 1931년 4월 6일에 신학생들과 교수들과 그 가족들 약 60명이순안을 떠나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다. 2

신학교의 서울 이전은 재림교회와 삼육대학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화였을 뿐만 아니라 의명학교 자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였다. 일단 재림교회로서는 실질 적인 의미에서 서울 중심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리고 삼육대학교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백년대계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의명학교로서는 고등교육 과정 없이 중등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 것은 의명학교로서는 일장일 단이 있는 변화였다. 그러나 신학교의 이전과 더불어 의명학교는 영적 리더십을 서서 히 잃게 되고 결국 재림교회로부터 분리되는 운명을 겪게 된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신학교의 서울 이전은 의명학교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¹이영린, 154.

²교회지남, 1931년 4월호, 32.

있다. 이 부분은 의명학교의 운명을 다루면서 상술하고자 한다.

3. 의명학교의 운명(1932~1937)

신학교가 분리된 이후 의명학교는 고등과를 중심으로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육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비록 신학교는 분리되었지만 교장인 하워드 리 목사의 지도 아래 삼육교육이념을 구현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였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러한 기관의 정체성은 일제의 정책적 압력과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 등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와해되었다. 그로 인해 의명학교는 새로운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1) 의명학교의 전문성 확대와 발전

비록 신학교가 서울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명학교는 중학과정을 가지고 지 속적으로 성장했다. 학생 수의 증가와 교사 수의 증가는 1931년 이후에 나타나는 자 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이 시기에 교비로 국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 던 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의명학교의 교사진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교육 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었다. 의명학교 최초의 교비 유학생은 4회 졸업생인 이 경일이었다. 1916년에 의명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보통과(소학교)에서 교사를 하던 이경일은 1920년에 최초의 교비유학생으로 뽑혀 동경제국대학 농학부 실과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후 1925년 3월에 졸업하고 귀국하여 의명학교에서 교편을 잡 았다. 이경일 선생 이후 1926년에 윤달성, 이춘성 두 사람이 역시 교비 유학생이 되 어 일본 동양대학 전문부(문과)와 동경물리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이들 중 이춘성은 유학생활 중에 실명을 하여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 귀국하였고, 그를 대신하여 현영 훈이 유학길에 오르게 된다.1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마친 현영훈 역시 돌아와 의명학 교의 교사가 되었다. 1928년에는 곽병수(곽종수로도 불림), 이용우가 교비로 연희전 문학교에 진학하였으며,2 1929년 봄에는 정성걸이 일본동양대학 전문부 문과에 진학 하여 교비 유학생으로서 공부하게 되었다. 이들 가운데 정성결과 곽병수는 신학교가 서울로 이전한 뒤 1년 후인 1932년에 귀국해 의명학교의 교사진에 참여함으로써 의 명학교의 교사 수준을 높이게 되었다.3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합회 교육부에서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교원강습회도 정기

¹교회지남, 1927년 3월호, 32.

²교회지남, 1928년 5월호, 32.

³교회지남, 1932년 4월호, 32.

적으로 진행하였다. 실례로 1931년 7월 20일부터 의명학교에서는 재림교회학교 교원 38명이 모인 가운데 하계교원 강습회가 개최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예배 및 성경공부뿐만 아니라 엘렌 화잇의 교육(Education)을 가지고 올바른 교육과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강습도 있었다. 이 강습을 통해 교사들은 삼육교육이념에 입각한 기독교 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양을 쌓았다. 특별히 이 교원강습회에서는 대총회와 원동지회가 채용하는 교사인증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강습회에서 시행한 시험성적과 의명학교 재학 당시의 성적을 토대로 우수한 교사들에게 교사증명서를 주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강습회가 마치는 날에 2명의 교사에게 3년 교사증명서가 수여되었고, 7명의 교사에게는 2년 교사증명서가 수여되었다. 그리고 41명의 참석교사들에게는 출석증명서가 수여되었다. 아울러 합회 교육부에서는 재림교회 교육정책이 담긴 참고서를 준비하여 보급하기도 했다. 이 참고서에는 재림교회 학교사업의 "모든 특색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어, "모든 사역자들과 교회 지원들은 그것을 통해 효율적인 그리스도인 교육을 시키고, 그로 인해 모든 학생들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1

이처럼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을 확보하고, 나아가 매년 교사들을 강습회를 통해 교 육시킴으로써 삼육교육이념에 입각한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의명학교는 신학교 분리 이후에도 발전을 계속하였다. 하워드 리 교장이 1935년에 교회지남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그해 3월말 현재 고등과 재적생 수는 225명(남학생 166명, 여학생 59명)이고 보통과 재적생 수는 153명으로 나타난다. "해마다 교인수의 증가에 따라 본교의 재적 생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본교회 소학교 졸업생 가운데 더욱 많은 학생이 의명학교에 입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와 더불어 하워드 리 교장은 1933년에 28명이 졸업 해 그 중 7명이 교회 사업에 종사하였으며, 1934년에는 19명 졸업생 중 12명이, 1935년에는 14명 졸업생 중 그해 6월까지 4명이 교회 사업에 참여하였음을 강조하 였다.2 의명학교가 여전히 삼육교육이념과 정신 아래 교회 교역자들을 양성하는 기 능을 충실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아울러 이 당시의 실업부 역시 탁걸 과 벤슨(H. F. Benson, 邊孫) 선생의 지도 아래 잘 운영되었으며, 실업교육을 통한 삼육교육이념 구현에도 충실하였다. 1934년 한 해 동안 실업부에서 학생들에게 지불 한 노동비는 2,262원 59전에 달했다. 많은 학생들이 노동을 통해 돈을 벌었고, 그중 에서 많은 학생들이 십일조를 잘 바치는 등 학문과 노동과 신앙에 열심이었다. 청년 활동인 청년의용선교회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하워드 리 교장이 보고한 내용을 볼 때, 의명학교는 1935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삼육교육이념에 충

¹교회지남, 1931년 11월호, 21, 22.

²교회지남, 1935년 6월호, 32.

실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교육목적을 성취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지속하던 의명학교에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외면상으로 볼 때 의명학교는 교비유학생 제도로 말미암아 더 훌륭한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확보하였고, 그로 인해 교육 전문성의 측면에서 학교는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성의 증대만으로 의명학교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다.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돌아온 교사들이 많아지면서교직원들의 의식이 분화되었고, 그로 인해 재림교회 교육이념에 따른 학교 운영을 추구하던 행정자들과 갈등의 소지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내부적인 요인들이 의명학교의 분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물론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한 이유가단순히 내부 구성원들의 의식분화 자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 강력한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돌아선 일본정부의 사립학교들에 대한 강압정책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신사참배 문제는 학교 행정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나아가의명학교를 분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2) 의명학교와 신사참배 논쟁(1935~1936)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를 표방했던 일제는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본래품고 있었던 제국주의적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었다. 특별히 한국에서 민족성 말살과 식민지 정책을 영구화하기 위해 폭압적인 동화정책인 "황국신민화 정책"을 취하면서 일본은 그 정책의 수단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2만주사변 이후신사참배가 강요된 첫 번째 사례는 1932년 1월에 광주의 황군 기원제에서 일어났다. 김승태 박사는 1932년 1월 14일자 목포신문에 게재된 "황군에 대한 기원제에 참가하지 않은 광주의 그리스도학교"라는 기사로 이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3 같은해 3월 21일에는 평양의 춘기 황령제, 9월 21일에는 평양의 만주 출정 전몰전사 위령제 등의 행사에서 역시 기독교학교들의 신사참배 요구가 있었고 대부분의 기독교학교들이 교리상의 이유를 들어 그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서 신사참배 문제는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신사참배 강요가 시작된 것은 1935년 11월 14일 평안남도지사 야스다케(安武)에 의해서 도내 공사립학교 교장들에게 내려진 명령으로부터였다. 야스다케

¹상게서,

²김숭태, "1930년대 기독교계 학교의 신사문제 소고," 한국기독교사논문선집, 제2집(1991): 366, 367.

³상게서, 369.

⁴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서울: 기독교문사, 1972), 177;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426.

는 공사립 중등학교 교장회의를 소집하고 개회 벽두에 참석한 교장들에게 평양에 있 는 신사에 참배하기를 명령하였다. 기독교사학자들은 이때 야스다케가 평양의 중등학 교 교장들에게 신사참배를 명령한 것은 한달 전에 서울의 정신여학교와 경신학교 학 생들이 신사참배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참배하게 된 사례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 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야스다케는 당시 가장 기독교 교세가 강하고 보수적이었 던 평양의 대표적인 미션 계통의 학교들도 신사참배를 강요시킴으로써 신사참배에 대 한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1 하지만 이 때 기독교계 사립학교인 숭실학교장 맥큔(G. S. McCune) 목사와 숭의여중학교장 대 리 정익성 선생, 의명학교장 하워드 리 목사 등 3명이 교리 상 참가할 수 없음을 표 명하고 신사참배 명령에 불응하였다. 교장회의가 마친 후 야스다케 평남지사는 서면 으로 "신사참배는 국민교육상의 요건이므로 금후 참배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단호한 처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해왔다.2 이 통고에 따라 각 학교는 나름대로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 고심하였다. 특별히 숭실학교 측과 의명학교 측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기독교 역사가들은 정리하고 있다. 숭실학교 측은 평 양신학교의 박형룡 박사, 산정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 등 교단 지도자들 및 행정자들 과 많은 협의를 거친 후 교리적인 이유를 들어 1936년 1월 18일 산사참배 거부 의 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로 인해 숭실전문, 숭실중학, 숭의여중은 1937년 10월 29 일에 폐교되었다.3

숭실학교의 입장과 동일한 상황에 처한 의명학교 역시 신사참배 강요 문제로 고심했다. 야스다케의 최후통첩4을 받은 의명학교장 하워드 리 목사는 12월에 필리핀의마닐라에서 개최된 원동지회 추기 평의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의논했다. 그러나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지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답을 듣고 돌아왔다. 필리핀에서 돌아온 후 합회 지도자들은 12월 하순에 합회본부에서 평의원회를 개최하여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5 이 회의에서 "대다수의 평의원들은 참배에 반대의견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결과는 신사참배를 승인하는 가결로 끝났다."6 이 결정이 내려지고 난 후 1936년 1월 17일에 의명학교장

¹박용규, "한국교회 신사참배 반대운동: 역사적 개관," 신학지남, 2000년 겨울호(통권 265호), 169. 2김양선, "신사참배 강요와 박해," 한국기독교사논문선집 제2집, 24.

³박용규, 184-189.

⁴야스다케는 각 교장들에게 "돌아가서 상부 지도자들과 의논한 다음 60일 후인 1936년 1월 중순에 다시 와서 대답해 줄 것을" 최종 통고하였다. 손정목, "조선총독부의 신사보급, 신사참배 강요정책 연구," 한국기독교사논문선집 제2집, 286; 이영린, 69; 동아일보, 1935년 11월 24일자 2면 1단.

⁵교회지남, 1936년 2월호, 32. 이 회의에 참석한 대회장들은 북선대회장 정동심, 서선대회장 푸드 웰(W. J. Pudewell), 중선대회장 최태현, 영남대회장 김항모, 호남대회장 김예준 등이었다. 교회지남, 1935년 6월호, 50.

하워드 리, 합회장 어쿼하트(E. J. Urquhart, 禹國華), 벤슨, 정성걸 등 재림교회 지도 자 4인이 평안남도지사를 방문하여 신사참배를 승인할 뜻을 밝힘으로써 의명학교의 신사참배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1 숭실학교 측과 달리 신사참배를 수용하기로 최종합의한 의명학교 측의 결정에는 역사적으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의명학교의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승인한 표면적인 이유는 신사를 종 교가 아닌 국가의식의 대상만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2 물론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 요하기 위해 이렇게 회유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계 인사들은 신사가 명백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단순한 국가행사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하 고 신사참배에 강경하게 대처해왔다. 이런 의식은 의명학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명학교의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일본 측의 주장에 따라 신사참배를 단지 국가적인 행사로만 보고 승인하기로 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영린 교수와 김재신 목사 등 재림교회 역사가들은 그 이유가 일제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3 이러한 해석은 보편적으로 수 용가능하지만 좀 더 세부적인 재해석의 여지도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숭실학교 측의 입장과 먼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야스다케 평남지사가 처음에 평양의 학교장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숭실학교장과 의명학교장은 모 두 교리상의 이유를 들어 신사참배를 반대하였다. 숭실학교 측은 이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여 결국 최종 결정을 내리는 회의(12월 13일)에서 신사참배 거부를 결정하였 다. 따라서 의명학교의 결정 과정도 숭실학교 측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 다면 역시 거부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명학교 지도자들은 일제의 압력에 의해 최종적으로 신사참배를 수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어떤 압력이 그같은 결의를 이끌어내었을까?

이 부분은 일제가 장로교측의 신사참배 수용 결의를 유도했을 때의 분위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숭실학교에 신사참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 학교가 소속된 교단인 북장로선교회 측에는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숭실학교장 맥큔을 중심으로 홀트크로프트, 솔타우 등은 신사참배를 "종교적 신념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양심에 거슬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거부의 입장을 분

⁶이영린, 69.

¹동아일보, 1936년 1월 18일자, 2; 매일신보, 1936년 1월 18일, 19일, 20일자에 연재됨.

²이영린, 69.

³상게서; 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65.

⁴승실학교장 맥큔은 1935년 11월 13일 심야까지 자신의 집에서 북장로교 선교회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신사참배 문제를 논의한 결과 거부하기로 최종 결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러한 결정을 저지하고자 했던 일제의 시도는 없었다. 최훈,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 문제," 한국기독교사 논문선집 제2집, 107.

명히 했다.1 하지만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한 다른 한 진영은 신사참배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응하더라도 미션스쿨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위해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2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신사참배와 교회학교 운영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던 한국 북장로선교회는 뉴욕선교부와의 논의 끝에 1936년 7월 1일에 학교를 철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3 그러나 이런 선교회 지도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장로교는 1938년 9월 9일 역사적인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수용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결과를 낳았다.4 장로교 역사가들은 이 과정에서 일제의 조직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제는 장로교의 신사참배 수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선 평북노회를 강제로 설득해 1938년 2월에 이 노회가 신사참배 수용을 결정하도록 유도한 후 총회 전까지전국 23개 노회 중 17개 노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총회 당일날 강압적인 수단이 동원된 긴급절차에 의해 만장일치로 신사참배 수용을 가결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이다.5 이때 결정된 장로교의 신사참배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 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독선여향하고 추후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서 통후 황국신민으로서 정성을 다하기로 함.6

장로교회의 신사참배 결의 과정에 대한 설명은 재림교회 의명학교의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적 과정에 대한 역사가들의 이해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영린 교수는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승인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기야 그 때에 의논도 변변히 하지 못했을 것이니, 이는 수다한 정, 사복 경찰들이 회의에 입석하고 있었음을 물론 평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전에 방문하고 반대의견을 내놓지 못하도록 위협해 놓았기 때문이다."7 이 회의가 진행되기 보름 전에 숭실학교 측이 교장인 맥큔의 자택에서 심야에 걸친 토론 끝에 신사참배 부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묵인했던 일본 당국이 12월 말 의명학교측의 결정 과정에 강제적으로 개입한 것이 어떤 의미를 말해주는 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 기록들에 따르면 재림교회의 결정이 있던 때부터 일제는 신사참배를 수용하도록 매우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는 쪽으로 정책적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강력한 정책

¹박용규, 186.

²상게서, 187.

³상게서, 189.

⁴상게서, 198.

⁵김양선, 32.

⁶박용규, 한국장로교사상사(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⁷이영린, 69.

적 대응으로 의명학교가 신사참배를 받아들인 후,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등이 교단적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결의를 하게 되는데, 이 대부분의 경우에 일제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의명학교 측의 신사참배 수용 결정은 자의적이었다기보다는 일제의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의가 아닌 강압에 의해서 결정된 만큼 신사참배 수용 결의는 의명학교 구 성원들은 물론 전국의 재림교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대부분의 재림교인들은 신 앙적인 이유로 신사참배를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괴로워했다. 결국 이 문제 가 교회 및 의명학교 내에서 작은 분열의 계기를 낳았던 것 같다. 재림교회에서 출간 된 몇몇 증언집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신사참배 문제는 교인들 사이에서 여러 분열 의 요인이 되었다.1 이 결정이 의명학교 내부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는 확실하 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이 일 후에 23년간 의명학교 교장을 맡아 학교 발전에 많은 공헌을 남긴 하워드 리 목사는 교장직을 사임하고, 1936년 12월 2일에 결국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2 그리고 하워드 리 목사가 귀국할 무렵 본부에서는 이성의 목사를 후임 교장에 임명하였지만 학교와 지방의 일부 사람들의 반대로 그는 교장에 취임하 지 못했다.3 이에 할 수 없이 교단에서는 벤슨 선생을 교장에 취임시켰다. 그러나 그 역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환영을 받지 못했다.4 신사참배 수용 이후 의명학교에서 목 사들의 지도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의명학교 내에서 삼육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내외적인 이유로 인해 재림교회는 의명학교를 순안 지역주민들에게 양도하고 그곳에서의 삼육 교육사업을 마감함으로써 의명학교 시대를 마무리 짓게 되었다.

3) 의명학교의 양도(1937)

1937년 7월 초에 개최된 합회 평의원회에서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비장한 심정으로 의명학교를 이경일 선생에게 무상으로 양도키로 결의"하였다. 5 재림교회 역사가이영린 교수가 남긴 이 한 문장 속에는 수많은 역사적 의미들이 담겨 있다. 순안의의명학교는 재림교회가 삼육교육이념에 따라 이 땅에 근대교육의 뿌리를 내린 매우중요한 교육기관이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재림교회는 이 학교에 모든 애정을 쏟아한국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교육사업에 정진해 왔다. 의명학교는 이 땅의 민초

¹이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책들은 다음과 같다. 이여식, 선구자와 순교자의 발자취(서울: 시조사, 1988), 183, 184, 289, 290; 이종근 편, 어둠을 밝힌 빛의 증언들(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1998). 183, 184, 293-300,

²교회지남, 1937년 1월호, 32.

³김재신, 삼육대학교90년사, 165.

⁴이영린, 148.

⁵이영린, 148; 교회지남, 1937년 8월호, 48.

들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면서 민족의 희망을 창출하기 위한 재림교회의 노력의 산실이었다. 그런 중요한 기관인 의명학교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재림교회가 의명학교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선 삼육교육이념의 실현이 더 이상 불가능한 내외적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1 의명학교가 순안의 지역 주민들에게 양도될 당시 학생 수는 245명이었다. 그 중의 144명이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학생들이었다. 학교 내에 신앙을 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50%를 훨씬 상회하게 되면서 학교가 기독교사상에 입각한 교육을 실행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2여기에 고학력 선생들이 늘어나면서 기독교교육이념에 대한 실제적인 도전 또한 만만치 않았다. 특별히 1936년 신사참배 논쟁 이후 강력해진 일본정부의 황민화 정책은 번번이 기독교교육이념을 중심으로 하는 의명학교의 행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이는신사참배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35년부터 시작해서 5년 사이에 200여 교회와학교들이 문을 닫았던 당시의 한국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3 이러한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서 합회 교육부와 의명학교는 자주 충돌하였다. 당시의 합회 교육부장은 서울로 이전한 조선합회신학교의 교장이었던 클린턴 리 목사였는데 의명학교는 교육부의 명령을 빈번히 거절함으로 충돌 양상이 잦아졌다.

이런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난 것엔 몇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 그첫 번째 요인으로는 일본의 교육정책의 변화였다. 황민화 정책을 강화하고 기독교계학교를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하게 되자 의명학교 교사들은 학교 유지를 위해 교단의교육정책과 일본의 정책이 충돌되는 경우 후자의 정책을 취하고자 했다. 이와 아울러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재정 상황도 다소 어려워졌다. 1937년 4월에 개최된 제10회 조선합회 총회에서 합회장인 오버그 목사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적 불경기의 여파로 조선사업도" 위축되고 있었다. 4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담도 의명학교를 순안 지역의 사람들에게 양도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그동안 재림교회는 교단의 중심을 서울로 이전하고 병원과 학교 등 기관들도서울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외진 순안에대해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조선합회 지도자들은 의명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를 더 이상 물리치지 못하고 1937년 7월에 의명학교를 그곳의 교인들로 조직된 이사회에 무상으로 인계하였다. 그리고 그 해 9월 1일에 순안 지역의 주체 중 하나였던 이경일 교감이 교장에 취임

¹이영린, 148.

²교회지남, 1933년 3월호, 29.

³한국교육100년사 편찬위원회, 242, 243.

⁴교회지남, 1937년 5월호, 1.

함으로써 교단으로부터 독립된 지역학교로 변신했다.1 새로운 운영자들은 학교 명칭을 순안 아카데미(Soonan Academy)로 칭하고 순안의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이때 학생 수는 373명이었으며, 교사 수는 21명이었다. 학교의 규모와 교육 과정, 그리고 기타 모든 시설 면에 있어서 매우 훌륭한 중학교였다. 학교는 비록교단으로부터 행정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이사진들이 모두 재림교회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삼육교육이념에 따른 기독교교육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38년에 개정된 제3차 조선교육령2에 따라 학교 명칭을 순안중학교로 개칭(1943)하고, 그이후 안식일 휴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순안중학교는 더 이상 삼육교육이념을 구현하지 못하고 일반 중학교로 바뀌고 말았다.

의명학교의 양도는 아마도 서울에 소학교를 비롯하여 신학교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의명학교를 쉽게 포기하게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림교회 지도부는 의명학교를 지속적인 삼육교육 기관으로 운영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자 교단 지도부는 할 수 없이 의명학교를 양도하고 그 후 곧바로 서울에 중등교육 기관을 세우게 되었다. 이처럼 재림교회에서 중등교육기관은 여전히 중요한 관심 사업 중에 하나였다. 이로써 재림교회는 의명학교를 순안지역에 양도함으로써 의명학교 시대를 접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삼육대학교의 역사는 그렇게 한 지점을 돌아 이제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¹교회지남, 1937년 8월호, 48; 교회지남, 1937년 10월호, 48.

²¹⁹³⁸년에 내려진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는 소학교, 중학교로 개칭되었다. 이에 따라 의명학교는 순안중학교로 인가를 받게 된다. 한국교육100년사 편집위원회, 182.